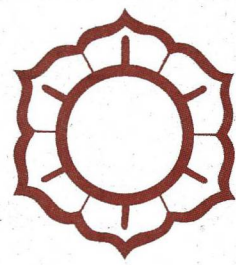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흙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실천하는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05년
7월 1일
금요일
제69호

이 달의 종조법설
불공중에 오는 마장은 공덕되기 위해 오는 것이므로 먼저 탁하고 뒤에 맑아지는 법이라. 밀교의 삼륜신은 관행자가 공덕을 성취하려고 정진할 때에 법을 주어서 행자로 하여금 자기의 힘과 결집을 체험으로 알게하고 없애도록 하기 위해 오는 법을. 아직 증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장이라 하느니라.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일체 유·무정 살리는 방생법회” APEC 정상회담 성공개최 및 해탈기원



방생법회에 동참한 교도들이 업장소멸과 중생해탈, 소원성취를 발원하고 있다.

“시방삼세에 두루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며 지혜와 광명이 충만하신 부처님, 저희들이 지난날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탓으로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일심으로 참회하오니, 우리 불자들이 국가와 가정의 번영을 위해 방생법회를 봉행함에 있어 지혜와 구족하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지성으로 발원 하나이다.

법계합령들이 함께 고통을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각을 이루어 많은 중생들과

더불어 불도를 성취하게 하옵소서.” 총지중은 하반기 49일불공을 7월 15일 회향함으로써 그 공덕을 회향하는 차원에서 방생법회를 오는 7월 16일 전국사원에서 각 교구별로 봉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경남교구는 올해 부산지역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법회를 특별히 봉행하게 된다.

우승 총리원장은 방생법회에 즈음하여 “방생법회란 불교의 생명 존엄 정신에 입각하여 자비의 마음으로 죽게 된 생명을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주고, 삼

귀의계를 일러주며, 십이인연법을 실천 후 자신의 업장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법회입니다. 방생이란 불교의 오계 가운데 첫째로 삼는 ‘살아 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계를 단지 죽이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선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를 구제하는 적극적인 보살행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무릇 살생을 경계하는 것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으뜸이요, 죽어가는 목숨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함이다. 또 피를 가진 동물은 반드시 자각이 있으며 이 자각은 곧 불성이므로 어찌 오늘의 천한 바가 다른 날에 존귀했었다고 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경계에서는 중생과 부처의 구별이 없고 평등한 본성 가운데에는 나와 남의 구별이 없건만 중생들은 망령된 생각으로 이를 깨닫지 못하고 능히 돌이킬 줄 모르면 슬픈

일입니다.”며 “방생이란 가엾은 여기는 마음에서 발현하여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 덕화사 7월 말경 완공 전통양식과 외부단청 조성

지난해 12월초 부산시 덕천동에 대지 296평에 연건평 343평, 지하1층과 지상 3층으로 착공했던 부산 덕화사(주교 대원)가 오는 7월 말경 완공될 예정이다. 덕화사 시공업체인 연흥건설은 “덕화사 신축에 있어 건축문화의 창조를 위한 심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주제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건축의 양식을 개발하여 편리성과 장엄성을 고려하여 건축하였으며, 작업자들은 성실시공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밝혔다.

생명을 아끼고 살생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경전의 가르침을 살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육도 윤회로부터 해탈케 하는 것임을 알고 많은 불자들이 방생법회에 참석하여 선망부모의 해탈과 부처님의 자비심을 증득하기를 서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부산경남교구는 7월 16일 총북 제천 의림지에서, 대구경북교구는 경남 합천댐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특히 덕화사는 불단장엄과 외부단청으로 종전의 총지중 건축양식의 일대 변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외부단청은 총지중 사원양식에 없었던 것으로 이번이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서원당의 불단도 담장과 만다라 등으로 장엄하게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덕화사가 완공되면 웅장함과 청정수행 밀밭도량으로 정각사와 더불어 부산지역에 밀밭홍포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총지중 포교의 일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바다같은 넓은 마음 배워요”

총지중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여름 학생 수련법회



7월 24회 여름학생수련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수련법회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총지중은 오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총남 보령 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여름학생 수련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학생 수련법회는 대천의 해수욕장과 보령의 석탄박물관, 산행체험 등을 통해 바다의 드넓은 지평선을 보면서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의 기상을 배양하고, 산행체험을 통해 숲속의 자연생태등을 관찰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고, 총지중의 수행법을 체득하여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름학생 수련법회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보람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지중은 이번 수련법회를 계기로 수련법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수련법회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수련법회 후 일관성있는 포교프로그램의 개발 부재, 수련법회 외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포교를 위한 자성학교나 청소년 법회, 청년회 법회의 필요성, 정기적인 전국 학생회나 청년회 단체들의 체육대회,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경제지 지원 등 청소년 포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흥미롭고 다양한 포교방법의 선택으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총지중에 입교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죽비소리

어귀 가운데 떨어진 사람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사망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나니 이것은 임의 과보이니라
아무리 많은 문견(聞見)을 가지고 대중 앞에서 설법하여도 믿음의 업을 이루지 못했다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 믿어 주지 않는다.
그 이름 널리 들리려 하면 남의 믿음을 얻어야 하니 그러므로 그 말이 정성스럽고 꾸밈없는 하지 말아야 하네
『법원주림, 중에서』

총지중 연희단 원력상 수상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공헌

총지중 연희단이 지난 5월 8일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에서 봉축위원회로부터 연희단 부문 우수상인 원력상을 수상하였다. 총지중 연희단은 연등축제에서 화려한 중풍복과 밀집모자에 연꽃으로 꾸민 모자를 쓰고 아담한 한복으로 20대에서 60대까지 보살들이 동참하여 아름다운 연출을 보여주어 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특히 올해 연등축제에서는 행사 전 오랜 시간동안 아름다운 율동과 통일성을 보여주기 위해 각자 부문별 연습을 하였으며, 단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도자의 지도아래 각자 어려움을 격려하

며 연습을 하였다. 연희단의 최재숙 단장은 소감에서 “서울경인 합창단으로 구성된 이번 연희단은 그동안 합창단 활동으로 서로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단원들의 노력과 정진력 때문이며, 단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수의 교도들이 합창단 활동에 동참하여 합창단이 발전되기를 서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인 합창단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정기적인 모임과 연습을 통해 불교연합합창단에서 가입하여 활동하며, 아름다운 음성공양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고 있다.



APEC 정상회담 성공개최와 해탈절 방생법회

방생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의 여건을 제거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고 중생의 해탈과 더불어 소외받는 이웃을 도와주는 자리아타행으로 총지중 방생법회에 모든 불자들이 동참하시어 하반기 49일불공의 회향공덕으로 부처님의 가지력을 입고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남교구

◎ 일시 : 총기34년(2005년) 7월 16일 12시
◎ 장소 : 총북 제천 의림지

◆ 대구경북교구

◎ 일시 : 총기34년(2005년) 7월 16일 12시
◎ 장소 : 경남 합천댐 용문정



불교총지중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 전승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사설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종단이 되어야

지난 6월 총지불교대학원이 오랜 숙원 끝에 개원되었다.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원만한 승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승직자 전문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서야 개원을 하게 된 것이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교단 내의 오랜 열원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총지불교대학원의 개원은 우리 종단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족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원과 동시에 2005학년도 제 1차 교육이 부산 정각사에서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 승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2차 교육은 금년 9월부터 서울 총지사서에서 경인교구 및 충청·전라지구 승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승직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높은 출석율을 보이며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

더구나 수강생 가운데에는 고희으로 인해서 교육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여 수강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총지불교대학원의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조짐으로 보인다.

우리 종단은 일찍부터 수행과 실천에 무게를 두고 교화적인 면은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승직자 선발과정에서도 교화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열심히 불공정진하였는가에만 둬으로써 현대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능력을 갖춘 법사를 배출하지 못했다. 승직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본분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수행력은 물론 교화에 대한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교화적인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도 아집만 강해지고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다.

배우지 않고 수행만 하면 무둔하고 맹목적이 되기 쉽고 배우기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불과를 맺기 어렵다.

따라서 교학과 수행은 새의 양 날개처럼 어느 한쪽도 무시하지 못할 면이 있으나 우리 종단은 상대적으로 교화적인 면이 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교화적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불교의 궁극적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 따라 승직자의 본분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목표를 뚜렷이 인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교화방편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단은 그동안 현장교화를 핑계로 교육을 등한시하고 승직자들 또한 교육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일년에 두 번의 강공회조차도 온갖 회의로 시간이 매꾸어지고 강공회를 통한 승직자의 재충전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곤 오래이다.

이번의 총지불교대학원의 개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교화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환영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 종단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기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앞으로도 장원하게 총지불교대학원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우선 우수한 강사진의 확보와 효율적인 교과목의 선정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총지불교의 적극적인 인적, 물적 협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법장원에서 부득이하게 총지불교대학원의 제반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독립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지원과 참신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종단이 교육의 중요성을 철저히 각성하고 모든 관심과 정성을 여기에 기울이는 것이다.

“자연환경과 생명윤리”

수덕사 제26차 한,일불교교류대회



◇제26차 한·일불교교류대회에서 한일양국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든 존재하는 중생들은 그 자체로 존귀하며, 더불어 한 생명이고, 한 몸이다. 흙 한 줌, 물 한 그릇, 공기 한 모금,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주는 존재로서 우주의 법칙이자 연기의 진리이다.”

한, 일 양국 불교계의 우호를 다지는 제26차 한, 일 불교교류대회가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수덕사에서 ‘자연환경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총지총 우승 총리원장을 비롯하여, 조계종 총무원

장 법장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번 한,일불교교류대회는 제1부로 삼귀의를 시작으로 대회사, 상축, 표백문, 인사말, 축사 순으로 제2부는 충남대 이평래교수와 일본 대정대 타다고소스님의 ‘자연환경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한일불교교류 협의회 일본 회장 미야야시 쇼겐스님은 “일본이 과거 귀국을 침해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과 참회의 마음과 함께 다시 불미한 일을 일으키는 일이 없을 것을 맹세한다.”는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해 공개 사과하였다. 그동안 일본불교계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입장표명을 회피하여 왔다.

“찬불가로 부처님 세상을”

총지총 찬불가 1집 출판



◇찬불가로 부처님 세상을 펼칠 총지총 찬불가 1집.

“은혜는 평생으로 버리지 말고, 수원은 일사라도 가지지 말라. 수원은 수원으로 풀리지 않고, 은혜를 생각할 때 풀려지리라. 은혜와 수원이 곧 친한데 있어, 도우면 은혜되고 해하면 수원 상대의 허물이 곧 내 허물이라. 인욕은 전화위복 행복하리라” 총지총은 지난 5월 전국 연합합창단으로 구성된

어 제작된 총지총 찬불가1집 CD가 6월 29일 출판되어 전국의 총지총 교도 및 불자들에게 찬불가로 불법을 포교하고 부처님 세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찬불가 CD에는 참가가, 오대서원가, 회향가, 창교가, 하루동안 행복함은, 자성일을 지키자, 네가지 큰 은혜, 부부가 화순하면, 우리회사 올린 것, 법신 부처님, 해인절 노래, 밀교삼신, 부모은혜, 보은노래, 성문찬가, 왕생가, 조가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총지총은 이번에 제작된 찬불가 1집 출판은 그동안 총지총 찬불가 보급에 대한 소원이 성취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전국사원에 찬불가를 보급하여 찬불가를 통해 포교를 활성화하고, 밀교와 총지총의 교리를 전파하는 등 포교방법의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알림방

- ▽ 하반기 49일불공 회향불사가 7월 15일 전국 사원에서 봉행됩니다.
- ▽ 하반기 49일불공 회향 방생법회가 7월 16일 부산경남교구는 총부 제천 의림지에서 대구경북교구는 합천댁 응문정에서 봉행됩니다.
- ▽ 어린이 및 청소년 수련법회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충남 보령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됩니다.

대법고

종단의 사회참여와 대외홍보 활성화

자경문을 보면 “주인공아!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자리 주인공이 만들어 냅니다. 마음이 부처도 만들어내고 중생도 만들어 내고, 천당도 지옥도 만들어 냅니다. 마음자리 주인공 그것이 씨앗이 되고 작용을 하여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나와 너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착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친하고 성글고, 살고 죽고, 상하고 쇠한 중생세계가 꼭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곁집을 덮어쓰게 됩니다. 돼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지가 되고, 호랑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호랑이가 되고, 모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기가 되는 것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총지총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별문별덕이신 관세음보살님의 육자대명왕진언 “음마니 리원장의 대외 행사관리 및 의견, 보도자료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종단의 현황을 보면 대외 활동면에서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원인은 종단의 인사 조직면에서 교계 및 종교계 행사 참석 및 종단 홍보대사 역할 등 종단을 홍보하고 포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전무한 현시점을 볼때 종단적 차원에서 다시한번 재고해야 할 사항이다.

향후 종단의 발전은 어떠한 방법으로 포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즉 많은 포교사들을 양성하고, 종단을 홍보하는 대외활동에 주력하고, 각 언론매체를 통한 종단홍보 방안모색 등 다양한 포교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때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교사 양성, 대외홍보에 주력

대외활동에 전담할 기구 구성

반매혹을 본준으로 모시고 결단과 진언연승, 신.구의 삼밀로써 즉신성불을 이루고자 수행하는 밀교종단이다.

이러한 총지총의 중지에 따라 총지총이 불교계의 주요 종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단체의 행사참석, 교계 대외활동 등 종단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 불교계에서도 종단별 교세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만 그와 더불어 종단 대표자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교계 기자와 언론사들도 많은 대외활동을 하는 종단의 홍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승 총리원장 취임 후 대외적인 행사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계에서 총지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총리원장을 대신할 수 있는 부장의 역할 활성화와 인사조직면에 대외활동을 전담할 수 있도록 종단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사상에 근거하여 대외 업무는 종단을 홍보하며, 통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5년 5월 31일부터 2005년 6월 27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5,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벽룡사 오기순 10,000	정각사 구정희 20,000	회음사 신정화 20,000
관성사 김홍조 10,000	밀인사 무명씨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100,000	정각사 무명씨 10,000	회음사 이순석 5,000
관성사 신현정 10,000	밀인사 신대식 5,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정각사 박훈취 10,000	회음사 이원식 5,000
관성사 현정원 20,000	밀인사 신동의 5,000	실보사 송희준 10,000	정각사 이상열 10,000	회음사 허현녕 10,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실보사 이순옥 5,000	정각사 이수임 5,000	강순란 5,000
기로원 대 관 10,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실보사 이순옥 5,000	정각사 황영숙 10,000	삼보불교 5,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밀인사 이해성 5,000	실지사 정경자 5,000	총지사 김은숙 100,000	안화자 1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운천사 김순옥 20,000	혜정사 수중원 20,000	이화수 5,000
기로원 불멸심 10,000	백월사 무명씨 5,000	운천사 최영문 20,000	혜정사 정길오 5,000	진관사 5,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백월사 무명씨 10,000	자석사 우바이 70,000	혜정사 조성기 10,000	
만보사 민분순 10,000	백월사 임승민 3,000	자석사 조창환 20,000	혜정사 해보심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총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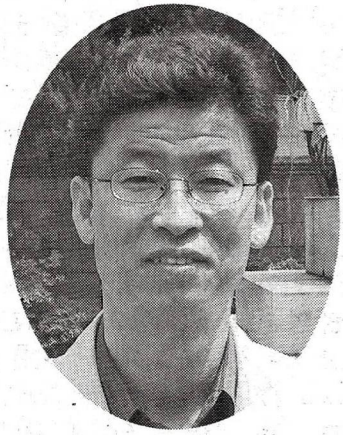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총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총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총지칼럼

불교계의 권위, 사회적 영향력



김종인

- ▲(현) 총지종 법장원 연구원
-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 ▲(현) 불교평론 편집위원
-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연구로 철학 석사 (1994)
- ▲스토니브룩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현대사회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신경정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는 기독교 중심의 서방 문명과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 아랍사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과학적 사고와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사회 전반에 걸친 절대적인 권위와 실질적인 통제력을 가질 수는 없다. 또 다양한 종교가 뒤섞여 있는 현대 사회에서 특정종교가 국가 권력과 연결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종교분쟁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분열

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종교의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무관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대사회에서도 종교는 여전히 교도들의 신앙생활 이상의 영역에 일정정도 관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종교 자체의 본질적 성질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종교는 개인적 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적 행위이다. 이 점은 개인의 깨달음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불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불교 역시 교리의 세부적인 내용에 상관없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해 왔을 뿐 아니라 또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은 불교의 실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도 남방 불교권 국가들에서는 불교가 국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북방 불교 전통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 국가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불교는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 한국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달라야만 할 수 없으며, 한국 불교가 미얀마나, 태국, 혹은 스리랑카 불교의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는 없다.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또 한국사회는 다종교 사회이며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친 기독교 신자 수가 불교신자 수를 넘어선 상태이다. 이처럼 불교가 한국 사회에 절대적인 힘을 미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이지만,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으며 그것은 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불교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진 종교이다. 불교 신도수는 기독교와 카톨릭 신도수를 합친 수와 맞먹는다. 뿐만 아니라 불교 신도수는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불교가 꼭 신도수의 산술적 비율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 불교는 신도 수에 비해서 너무나 영향력이 약하다.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약한지는 20여 년 전 일어난 하지만 80년

한데, 실제로 군부는 당시 대학에도 난입하여 무지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학생 운동 지도부를 연행해 가서 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그런데 당시 불교계가 이러한 법난을 당한 것은 분노스러운 일이 아니라 서글픈 일이었다. 왜냐하면 불교계는 반정부 투쟁을 벌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보 취급을 받아 법난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정부 투쟁을 벌인 것은 기독교였으며 불교는 늘 어용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군부가 불교계를 탄압한 것은 기가 센 기독교를 탄압했을 때 불려 올 반

추기경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정신적 권위를 가진 인물이다. 명동성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집단의 집회와 농성 장소로 이용되어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었지만, 한 번도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들어간 적이 없다. 집회와 농성을 하는 사람들은 신부나 수녀도 아닐 뿐 아니라 카톨릭 교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들을 손댈 수 없었다.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사찰에 뛰어들어 승려들을 폭행하고 끌고 가서 고문한 것과는 얼마나 다른 태도인가? 또 최근에 정진석 주교는 온

수에게 자랑스런 불자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 터이다.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교계 지도자들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지금까지 한국 불교계의 지도자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제대로 취한 경우가 드물다. 예전에는 전혀 시대의 방향에 역행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최근에는 날아진 측면이 있으나, 대개는 다른 집단들의 움직임에 둘러러 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광양 8.15 통일축전에 참가의 경우도 그렇다. 한국 불교의 최고 대표자도 참가하였는데, 그가 구체적으로 한 역할을 알 수는 없으나 TV 화면에 비친 그의 모습은 어느 민간인 대표의 둘러러 처럼 보였다. 그에게는 한 번도 TV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가 방북단 속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였건 간에 민간인 대표의 둘러러처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로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없이 불교계의 최고 대표자가 자리 채우기 위해 참가하였다면 참으로 망신스런 일이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TV 인터뷰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회가 불교를 깔보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를 대표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불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적 집단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결코 권위주의적 행동이 아니다. 그 권위는 결코 대표자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불교의 권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대통령 수행비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불교계 지도자들의 사회적 권위를 향상해야

10.27 법난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는 사회정화 명목으로 조계종 산하 거의 모든 사찰에 들이닥쳐 무수한 승려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여 폭행하고, 고문하였다. 당시 조계종이 각종 비리로 얼룩진 것은 사실이지만, 군부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은 조계종의 비리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군부는 마음만 먹으면 조계종에도 손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70년대 유신시절에 조계종은 학생 운동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반정부 세력이었으므로 신군부는 자신들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계종을 통제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통제의 방법으로는 물리적 폭력에 의한 공포심 조장을 택하였다. 이 방법은 또한 군부가 학생운동권을 제압하는 방식이기도

발의 부작용 없이 조계종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군부의 이러한 전략은 적중하였다. 불교계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반발한 번 하지 못했다. 군부가 풀러나고 세 번째 민간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불교계에서는 스스로 그에 대한 진상조사 한번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불교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정치적 잠재력을 가진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카톨릭의 정치적 영향력에 비하면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난다. 카톨릭 교도는 전체 종교 인구의 약 6%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전체 종교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한국 카톨릭의 수장인 김수환

국민이 집단적 히스테리 상태에서 떠받드는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지만, 정진석 주교가 이로 인한 책임을 맡지는 않았다. 정진석 주교의 입장은 부시 대통령의 입장과 완전히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우"로 보지는 않는다. 보수주의로 보기는 하지만 적어도 "극단적 보수"로 보지는 않는다. 그 까닭은 사람들이 정진석 주교 개인의 신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한국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 때문이다. 만약 불교계에서 고승대덕이라 일컬어지는 스님 가운데 누가 정진석 주교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면 정진석 주교를 받았을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지만 불교계는 이미 2년 전 초과일일 박세리 선수와 함께 황우석 교

이달의 설법문안

TV를 보거나 거리를 나가보면 저마다 자신의 개성을 뽐내듯 각기 다른 스타일의 머리와 의상, 귀걸이, 코걸이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부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어 약세사리를 매는 피어싱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두고 싶은 마음과 색다르지 않으면 남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가 함께 어우러져 이제는 엽기마저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획일화되거나 같음이 없이 서로의 개성들을 마음껏 드러내면서도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사회는 누구나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단 튀어보자는 식으로 외적인 모습에만 연연해하면 자기다운 면들을 무시한 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혼란만 가중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남들이 알아주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듯합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성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꼬리의 역할보다 머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만 있는 뱀을 생각해 보세요, 꼬리 없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중심을 잡지도 못할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상대

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없는 꼬리도 꼬리가 없는 머리도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꼬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연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꼬리가 없는, 뿌리가 없는, 조연이 없는 결코 제 빛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남이 하는 일은 관여 쫓아 보여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회 지도자가 되어야만, 남의 이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위층 인사들이나 유명한 사람을 부러워하며 한숨을 필요도 없고, 또한 높은 자리에 있고 유명하다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아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느낄 때 그는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해서는

연꽃처럼 사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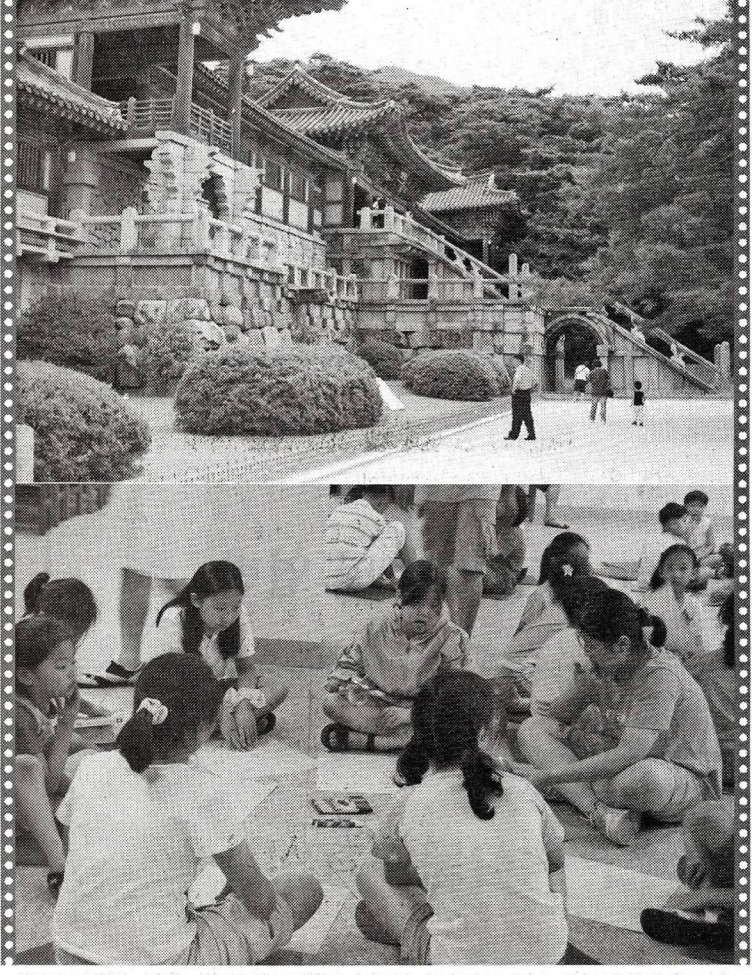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부모답게, 자식답게, 남편답게, 아내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대접만 받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출세 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다 보니, 과정으로서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거나 즐기는 것은 고사하고 성공을 위해 마지못해 인내해야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불자의 의무

다. 혹은 자신이 하는 일은 보잘 것 없는 것쯤으로 치부하며 출세하면 결코 이따위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마지못해 억지로 하며 다른 사람의 역할에만 눈 돌린다면 결코 자기다운 보람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는 동맥경화에 걸리고 맙니다. 흔히 '불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들은 향이나, 등불, 연꽃, 목탁

등일 것입니다. 향처럼, 등불처럼, 연꽃처럼, 목탁처럼 악취나는 세상을 향기롭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더러운 세상을 아름답게, 잠들어 있는 세상을 깨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연못에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그 열악한 환경을 영양분 삼아 청아한 연꽃을 피워 그윽한 향으로 주변을 맑고 향기롭게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살아가는 주위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거기에 매몰되거나 굴복하지 않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개선하고 변화시키며 사는 삶이 바로 연꽃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삶이요,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인다운 삶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수처좌주(隨處作主)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다움의 의미가 가볍게 여겨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와 역할이 헐거워지는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각박해지고 혼탁한 사회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무엇보다도 비견할 수 없이 고귀한 인간의 가치가 돈이나 물질보다 낮게 취급되는 가치의 전도는 자꾸만 관심의 방향을 바깥으로만 치달리

게 하여 탐욕심을 부채질할 뿐, 시선을 안으로 돌려 반성하며 스스로 해야 할 바와 자신의 가치를 찾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인간성은 메달라 가고 사회는 물질문명의 어두운 그림자에 지배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진흙과 같은 사회를 살맛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너무나 막연해서 이 세상의 일이 아닌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지고, 인간이 영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릇된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갑자기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된다는 것이고,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목적인 불국토 건설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람노릇을 제대로 하는 인간이 넘치는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알고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며 전도된 가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불자가 빛이 되고 바른 길잡이가 되어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의 사회화는 다만 이상일 뿐이고 구호에 그치고 맙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가없이 여기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진리를 전파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지금까지 쌓은 모든 선공덕을 중생들과 위없는 깨달음에 회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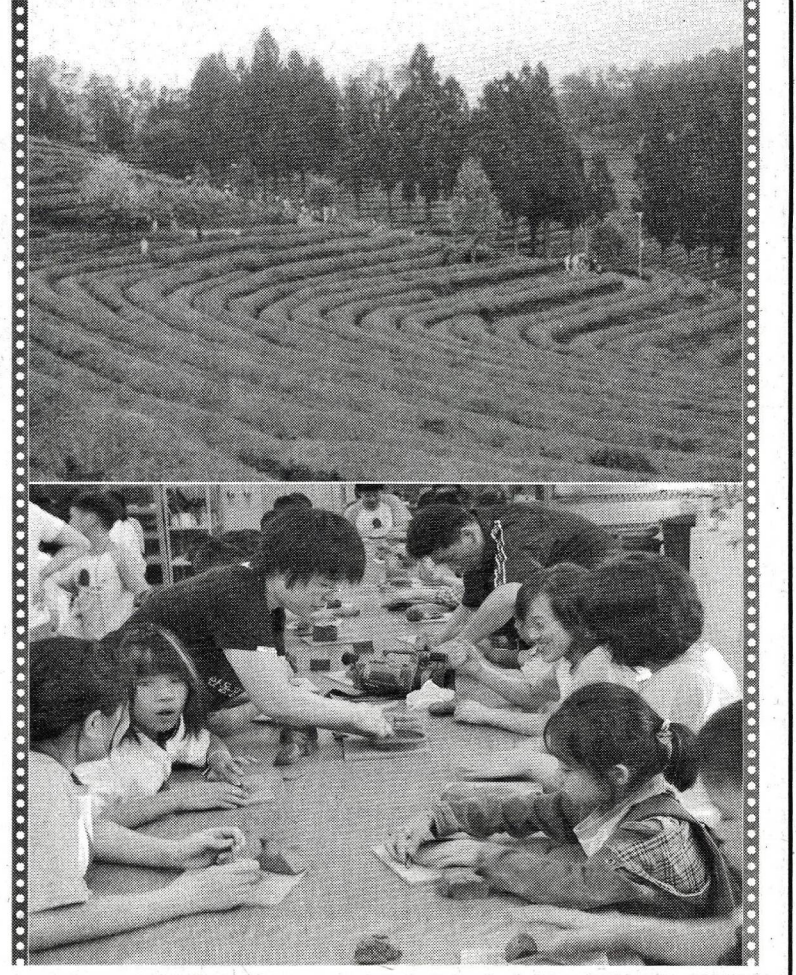


제15회 불교총지종

여름학생 수련법회

“바다와 같이 넓은 호연지기를 배우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법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충청도 대천 해수욕장과 보령의 석탄박물관 견학 등 드넓은 바다에서 크고 넓은 호연지기를 배움으로써 내일의 꿈과 희망을 고취시키고 총지종의 수행법을 체득하여 심신을 수련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확립하는 여름학생 수련법회에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 | | | |
|-----------------------------------|-----------------------------------|------------------------------------|
| 1. 어린이 수련법회 | 2. 청소년 수련법회 | 3. 공통 |
| ◆ 일시 : 총기34년(2005년) 7월 25일~7월 27일 | ◆ 일시 : 총기34년(2005년) 7월 27일~7월 29일 | ◆ 참가비 : 1인당 2만원 |
| ◆ 장소 : 충남 보령 청소년 수련원 | ◆ 장소 : 충남 보령 청소년 수련원 |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수영복, 수영모, 수건 지참 |
| ◆ 대상 : 초등학생 | ◆ 대상 : 중, 고등학생 | |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02)552-1080~2
전송: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⑳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연화군다리(蓮華軍荼利), 만공양(鬘供養)

지난 호에서는 관음원의 백처존보살(白處尊菩薩), 다리사지(多羅使者), 봉교사지(奉敎使者)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연화군다리(蓮華軍荼利), 만공양(鬘供養)에 대해서 살펴본다.

연화군다리(蓮華軍荼利)

연화군다리(蓮華軍荼利)는 선관자재보살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는 군다리명왕으로 알려져 왔다. 금강계만다라에서는 보생여래(寶生如來)의 교령륜신(敎令輪身)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령륜신이란 교령륜을 행하는 신이란 뜻으로 밀교에 있어서 모든 명왕 등의 분노상(忿怒像)을 현현한 것에 이롭다. 교령(敎令)이란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대일여래의 교칙이다.

이 교령(敎令)은 견고하여 모든 원적(怨敵)을 파쇄(破碎)을

존형(尊形)은 육색(肉色)으로 화염(火焰)과 같은 머리카락을 하늘로 곧추 세우고 천(天衣)을 걸치고, 왼손에는 미부연화(未敷蓮華)를 들고, 연화대(蓮華臺) 위에 외쪽 무릎을 세운채로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 군다리의 진언은 다리사지(多羅使者)와 같은 진언으로 '나막 사만다 보다남 지 시리 캄 보람 사바하'이다. 뜻은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자(智者)여! 길상(吉祥)인 자여! 합 브람 사바하!'이다.

만공양(鬘供養)

만공양은 대길상대명보살의 사자이다. 만(鬘)이란 원래는 장식구로서 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의미하였는데, 대승불교에 들어서는 분노상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불당(佛堂)을 장식하는 도구로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화만(華鬘)이라고 한다. 화만은 꽃다발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 화만(華鬘)을



연화군다리



만공양

하기 위해 전륜왕(轉輪王)이 갖고 있다는 보륜(寶輪)과 같다 하여 교령륜이라고 한다. 또 부동명왕을 대일여래의 교령륜신이라고도 한다. 이는 매우 강강(強剛)하여 교화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중생을 화도(化導)하기 위하여 모든 부처가 방편으로 드러내는 신(身)이다. 자성륜(自性輪)·정법륜(正法輪)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태장계만다라에서는 불부(佛部)·연화부(蓮華部)·금강부(金剛部)에 이 본존이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는 존(尊)이다. 여기에는 그 중 연화부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등장한 본존으로 그려지고 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불부(佛部)의 군다리명왕은 소실지원(蘇悉地院), 금강부의 것은 금강수원(金剛手腕)에 그려져 있다. 군다리명왕은 여러 가지의 밀교경전이나 의례서에 실려져 있다. 대개 홀로 묘사된 독존(獨尊)으로 많이 숭앙되어 왔다.

이 군다리의 밀호(密號)는 항복금강(降伏金剛)이며 삼매야형(三昧夜形)은 미부연화(未敷蓮華)이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공양하는 덕(德)이 인격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제설부동기(諸說不同記)』에는 이 본존은 양손으로 한 개의 화만(華鬘)을 든다고 하며,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에서는 그것을 압박 누락시킨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석산칠집(石山七集)』은 양손에 향로를 들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항로공양의 가능성성을 짐작케 한다. 일본의 관장원만다라(觀藏院曼荼羅)에서는 본래의 뜻에 따라 화만(華鬘)을 양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밀호(密號)는 대륜금강(大輪金剛)이고, 삼매야형은 화만(華鬘)이다. 존형은 육색을 띠며 양손에 화만을 들고 천의(天衣)를 착용하고 연화대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을 하고 이마에 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진언은 『대일경』 「구연품」에 실려 있는 「화만(華鬘)의 진언」이다. 이 진언은 일본 진언종의 기본적인 수법(修法)인 '십팔도(十八道)'의 오공양(五供養) 중의 화만(華鬘)에도 사용되고 있다. 진언은 '나막 사만다 보다남 마카마이 타리아부트기 사바하'이다.

(자료정리 : 통리원 교정부)

생활속의 밀교

수행의 본질



법경정사
(사무국장/연구원)

유보해야 한다. 우리는 쉽게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늘 쉽게,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은 자신마저도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이다.

너무나 무책임하게 마음을 쓰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린다. 무심코 던진 돌이 연못 속의 개구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재앙을 남기는 것과 같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것이 수행이다.

▶수행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조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원승이 처럼 날뛰고, 꼬끼리 처럼 무지막지 하게 덤벼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나의 뜻이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화내지 말아야 한다. 숲 속에 있는 작고 등이 굽은 나무를 보고, 다른 나무들처럼 크고 튼튼하지 않다고 화를 내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에는 숲 속의 나무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와 같아야 하고, 나보다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바란다. 오로지 자신만의 잣대와 독선, 이집으로 똘똘 뭉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올라가나 밟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만약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변하면 된다. 변화의 첫걸음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버리면 된다.

▶우리의 수행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번뇌를 없애는 것이다. 그것이 참다운 수행의 길이다.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 깨끗하고 편안하며 행복과 평화로움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순간들이 비록 짧은 지라도 순간순간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짧은 순간들을 수행을 통하여 계발하고 늘려 간다면, 거기에는 환희가 있게 되고, 우리는 어리석음의 터널을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쁨이 자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집착과 욕망, 성냄이 일어날 때를 조심해야 한다. 그럴 때는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지 나무 조각처럼 말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자존심이나 자만심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순간은 단지 나무 조각처럼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늘 수행과 반대되는 행동만을 하게 된다. 내 마음 속에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칭찬을 받고자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 할 때 마다, 내가 거친 말을 하려 하고, 논쟁을 야기하려 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그 순간에 나무 조각처럼 있을 줄 알아야 한다. 물질적 부(富)나 명예와 명성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항상 잘나기를 원할 때마다,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고자 할 때 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오롯이 나무 조각처럼 행동해야 한다. 내가 성급해지고, 편파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순간 나무 조각처럼 마음을 묵묵히 그대로 내 버려둬야 한다.

▶수행은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화를 잘 낸다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다. 불행한 쪽은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다. 화를 내는 감정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가시와도 같다. 그러나 그 가시는 들고 있는 사람을 먼저 찌르게 된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자기의 취향에 따라 선과 악으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좋아하는 사람만을 찾는다. 그것은 살아가는 데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사람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실사 찾았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그 어떠한 완벽함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늘 변하기 때문에 영원히 좋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행의 본질은 결국 늘 변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바로 자기 자신이 행위자요 주체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나의 자성불(自性佛)을 찾는 것! 바로 밀교진언행자의 수행인 것이다.



진언수행의 길

‘움치림’을 ‘호신진언’이라고 한다. ‘움남’의 정법계진언으로 정정한 법계를 이루고 나서 행자 자신의 몸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호신진언 ‘움치림’인 것이다.

법계를 청정히 하고 행자의 몸을 보호하여야 진실된 삼마지야연수에 들어갈 수 있을

그래서 정법계진언에서부터 호신진언에 이르는 동안 행자 자신은 스스로 몸이 청정하여지고 재발보살로부터 나의 몸을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 깊게 새기고 지녀서 외곽을 행해야 한다. 『현밀원통성불성묘집』에서는 “정법계 진언 다음으로 호

신진언을 21편 염송하라. 이 진언은 ‘움치림’이다. 이 진언을 염송하면 능히 오역십악과 일체죄업을 소멸하고 일체 범고죄장 및 악몽사매귀신 등 모든 불상사를 제거하며 일체승사와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성취된다.

이 진언은 곧 모든 불심이나 만약 사람이 지심으로 한번 염송하면 능히 자기 몸을 수호하고 일체귀신과 천마가 감히 가까이 침해하지 못하며, 두 번을 염송하면 동반자를 수호하며, 세 번 염송하면 집안 사람들을 수호하며, 네 번 염송하면 일체 성증을 능히 수호하고, 일곱 번을 염송하면 사천하 사람들을 능히 수호하는 공력이 있다”고 설하고 있다.

‘움치림’을 염송할 때는 ‘움남’과 마찬가지로 왼손은 금강권을 결하고 오른손은 108염주를 쥐고 3편이나 7편, 21편을 염송한다.

호신진언 <움치림>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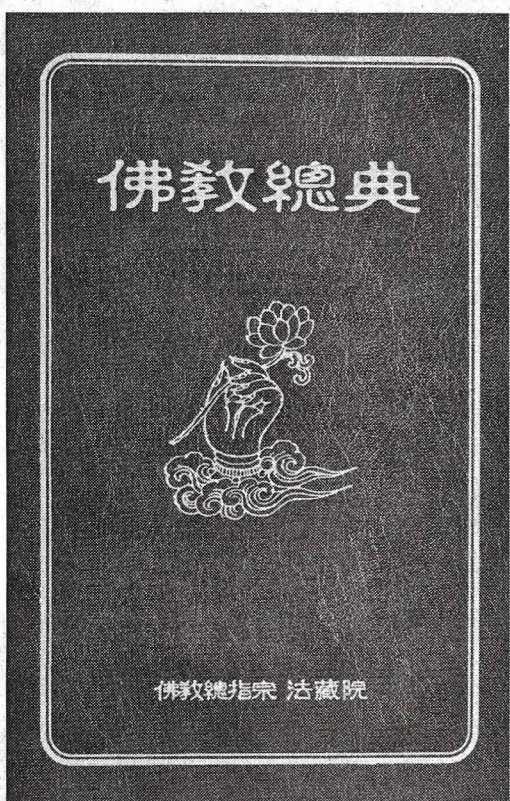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敎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종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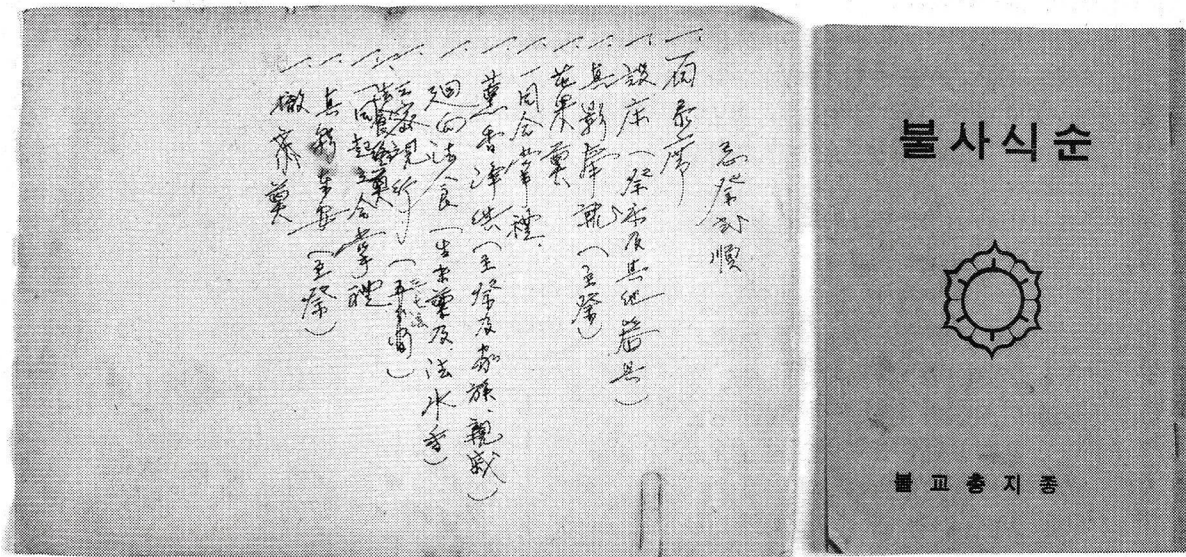
총지법문

<기획연재>

보리심계문(菩提心戒文) <2>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례(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弟子) 000은 미래제(未來際)를 다하여 무상삼신(無上三身)의 제불(諸佛)에 귀명하고 방광(方廣)대승(大乘)의 법장(法藏)에 귀명하며 불퇴(不退)의 제(諸)보살(菩薩), 승(僧)에 귀명 하나이다. 제자 000은 불(佛)에 귀명을 마치고, 법(法)에 귀명을 마치고, 승(僧)에 귀명을 마쳤나이다. 우리들이 이제 모든 보살과 화합하여 발심(發心)하고 미래제(未來際)를 다하여 항상 퇴전함이 없었사오니 원하건데 제존(諸尊)께서는 우리들이 보살임을 증지(證知)하여 주옵소서.(三說)



제사(第四)에 제개장보살(除蓋障菩薩)은 중생의 중중심구(種種心垢)가 능히 보리(菩提)를 가리니 이 보살은 능히 개장(蓋障)의 나무(羅霧)를 제(除)하고 밝게 대일(大日)의 광명(光明)을 나타내는 지라. 이런 고(故)로 이 네 보살을 봉청(奉請)하여 갈마(伽藍)아사리로 모시고자 보현, 자세, 묘덕, 제개장의 사대보살(四大菩薩)을 봉청(奉請)하오니 우리들을 위하여 갈마(伽藍)아사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사리가 되어 보살의 청정(淸淨)삼매계(三昧戒)를 받게 하옵소서, 자민(慈愍)하시옵소서.

5. 지심참회(至心懺悔) - 수계자

제자(弟子) 000은 과거(過去) 무시(無始) 이래로 금일(今日)에 이르러까지 무명(無明)에 미복(迷覆)되어 정심(淨心)을 위실(違失)하고, 망상(妄想)에 반연(攀緣)하여 모든 분별(分別) 탐·진·치(貪·瞋·癡) 등의 무량(無量)한 번뇌(煩惱), 분(忿), 한(恨), 간(慳), 질(嫉)의 모든 수번뇌(隨煩惱)를 일으키고 모든 아만(我慢)을 일으켜서 불·법·승(佛·法·僧)을 비방하고 일체(一切)재물(財物)을 침탈도절(侵奪盜竊)하여 고살오살(故煞悤煞)로써 중생을 해롭게 하였으며, 방자우치(放姿愚癡)하여서 모든 탐염(貪染)을 일으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훈신(薰辛)으로써 가람(伽藍)을 더럽히고 상주(常住)를 침손(侵損)하였으며 망어(妄語), 기어(綺語), 악구(惡口), 양설(兩舌) 파계(破戒), 파제(破齋), 오역(五逆), 십악(十惡) 등 죄가 무량무변(無量無邊)하였으니 우리들이 이제 정성을 지극히 발로(發露) 참회(懺悔)하오니 모든 죄가 소멸(消滅)하여 지이다.

7. 발보리심 - 수계자

제자 000등은 우리들이 금일 보리심(菩提心)을 발하였사옵나이다. 서원(誓願)하오니 일체(一切)중악(衆惡)을 단제(斷除)하셨사오며, 서원(誓願)하오니 무변법문(無邊法門)을 수습(修習)하셨사오며, 서원(誓願)하오니 일체중생을 도탈(度脫)하셨사오며, 서원하오니 여래의 일체승과(勝果)를 구하여 마땅히 보제도장(菩提道場)에 앉을 때까지 항상 퇴전(退轉)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들이 이제 모든 보살(菩薩)과 화합(和合)하여 발심(發心)하였사오니 원하오니 제존(諸尊)은 증지(證知)하옵소서.(三說)

수계자는 탐·진·치의 무량한 번뇌를 초월하고 퇴전하지 않음 아사리는 허물을 여의고 번역함이 없는 금강의 대일광명

8. 수계자(受戒者)

제현성(諸賢聖), 전계(傳戒), 갈마(伽藍), 교수(教授)아사리, 제(諸)증계(證戒)아사리. 제자 000등은十方一切諸佛을 청(請)하여 대존증(大尊證)으로 하오니, 大德은 우리들을 위하여 證明을 하옵소서.(三請) 제자 000등은 무동(無動), 보생(寶生), 아미타(阿彌陀) 천고뢰음(天鼓雷音)을 봉청(奉請)하여 화상(和尚)으로 하옵고 구족(具足)한 보살의 청정(淸淨)삼매야계(三昧耶戒)를 받고자하오니 우리들을 위하여 자민(慈愍)하시고 화상(和尚)이 되시옵소서. 마음을 지극히 하여 웅맹아축비(兪蒙阿鞠非) 최승보생존(最勝寶生尊) 대비아미타(大悲阿彌陀) 성취불공업(成就不空業)이 모든 무상존(無上尊)을 봉청(奉請)하오니 마음을 지극히 하여 봉청(奉請)하오니

살타금강(薩埵金剛)은 일체를 항복(降伏)받고 승상하공장(勝上虛空藏)은 능히 모든 관정(灌頂)을 주시며 구세관자제(救世觀自在)는 삼매유가(三昧瑜伽)를 나타내며 공교(工巧)한 비수갈마(毘首伽藍)는 모든 사업을 작(作)하오니 이와 같은 전륜자(轉輪者)는 오직 우리들의 청(請)을 받아주옵소서.(三說)

또한 금강(金剛)이라 하니 금강(金剛)이라 함은 실상(實相)의 뜻에 비유함이라. 일체의 어언심행(語言心行)을 출과(出過)하여 정히 소의(所衣)가 없으며 모든 법(法)을 시현(示現)치 않고 처음과 끝이 없으며 부진부과(不盡不壞)하여 모든 허물을 여의고 번역(變易)함이 없는 고(故)로 금강(金剛)이라 함이라. 세간(世間)의 금강(金剛)에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일(一)은 가(可)히 부수지 못하며, 이(二)는 보(寶) 중에 왕(王)이며, 삼(三)은 전구(戰具)중에 최승(最勝)한 것이라.

청(請) 교수(教授)아사리

보현보살, 금강살타, 관자재보살을 봉청(奉請)하여 교수(教授)아사리로 하옵나이다. 제일(第一)에 보현보살은 곧 여여법신(如如法身)이라 갖추어 만행(萬行)을 닦고 정진문(精進門)에 대하니 식재(息災)의 방편(方便)되는 연고며 제이(第二)에 금강살타보살은 금강지혜문(金剛智慧門)에 대(對)함이니 항복(降伏)의 방편(方便)되는 연고며 제삼(第三)에 관자재보살은 연화삼매문(蓮華三昧門)에 대(對)함이니 증익(增益)의 방편(方便)되는 연고이며 삼성(三聖)의 이름은 무량불가사의(無量不可思議)의 묘용(妙用)의 삼점(三點)이라 하니 곧 반야해탈법신(般若解脫法身)이라. 이런고(故)로 삼점(三點)에 일체법을 섭(攝)한 소이(所以)로 삼대(三大) 보살을 봉청(奉請)하여 교수(教授)아사리로 삼나이다. 마음을 지극히 하여 보현보살, 금강살타, 관자재보살을 봉청(奉請)하오니 우리들을 위하여 교수(教授)아사리가 되어 주소서 자민(慈愍)하옵소서(三說). (자료제공 : 종학연구원)

제사(戒師)

[문] 모든 인자(仁者)여 능히 일체제 불보살의 최상의 대율의(大律儀)를 수지(受持)하겠느냐? 수계자(受戒者) [답] 능히 수지(受持)하겠습니다.

6. 청계(請戒) 삼귀의(三歸依) - 수계자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긴장성 두통 긴장성 두통은 편두통과 함께 가장 흔한 두통으로, 외래 두통환자의 30-40%를 차지하며 흔히 편두통과 혼합되어 (연합성두통) 나타나기도 한다. 원인은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스트레

스나 과로 등으로 두경부에 지속적인 근육수축이 생기고 이에 따라 두통이 생기기 때문에 근수축성 두통이라고도 한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요인이 되므로 때

로는 신경성 또는 심인성 두통이라고 불린다. 두통의 임상양상은 환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비박동성의 둔한 통증으로 주로 양측 후두부에서 시작하여 전두부로 퍼지는데, 오전보다 오후에 심하고, 서서히 시작하여 수시간 내지 수일간 지속되며, 다른 국소 신경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긴장성 두통의 주요원인은 심리적 갈등으로, 환자의 기본성격과 생활환경을

둘러싼 많은 갈등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 치료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일차적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때로는 일상생활의 변화나 심리요법으로는 충분치 않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약물로서는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우울제, 근이완제나 소염제를 단독 또는 병용하여 투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강력한 습관성 약물제제는 가

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간 사용은 피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거나 스트레스의 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기질적인 심각한 질환이 없음을 환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검사의 낭용과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종학연구원)

Advertisement for Garak Neuro-psychiatric Clinic For The Elderly, featuring a photo of Kim Jang-gyu and text about dementia and stress management. Includes contact info: www.elderlynp.co.kr, 02)425-2045.

풍경소리

네가 도를 아는구나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자에게 물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겠느냐?"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고도 네가 도를 안다고 하겠느냐?"
 또 다른 수행자에게 똑같이 물었다.
 "사람의 목숨은 얼마 동안에 있는 것이냐?"
 "밥 먹는 사이에도 있습니다."
 "너도 도를 알려면 아직 멀었다."
 또 다른 수행자에게 묻자
 "사람의 목숨은 호흡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 네가 도를 아는구나"
 우리는 아주 분명한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이란 눈 깜짝할 사이에 생(生)과 사(死)의 순간을 함께 하지만, 생의 가운데서는 죽음의 세계를 항상 멀리 생각하게 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시간, 갑자기 자신의 앞에 펼쳐질 죽음의 세계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열심히 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가.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라곤 배 한 척뿐인 장사꾼이 바다에 들어가서 보물을 캐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다에 나가자, 갑자기 풍량이 일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타고 간 배마저 산산히 부서지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간신히 해안까지 나왔다.
 "신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다.
 "자네, 보물을 캐 오는 건 고사하고 타고 갔던 배도 저렇게 풍비박산이 돼 버렸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건가?"
 "이렇게 알몸으로 가까스로 배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나는 생명이란 거대한 보물은 잃지 않고 깨 오지 않았는가?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욕심이 욕심을 낳는다. 절제하지 못하고 무엇이

든 최고, 최다만을 구하는 마음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 언제나 다행이라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마음은 항상 충만되어 있어 기쁨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미녀(美女)

한 사람의 미녀에 대해서 말할 때, 음란한 사람이 그것을 보면 부질없는 애욕에 집착이 생긴다. 부정관을 수행한 사람이 이를 보면 가지가지 약이 드러나 단 한 곳도 정한 곳이 없다. 같은 정도의 여성이 이를 화내고 질투하는 눈으로 보면 알맞고 못마땅하게 생각된다.
 이처럼 같은 미녀를 두고도 음란한 사람은 욕정으로 보고, 질투하는 사람이 이를 보면 고통으로 보며, 수행한 사람은 부정관을 통하여 깨달음이 도를 얻고, 즐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를 보면 전혀 느끼는 바가 없어서 마치 너무나 돌을 보는 것과 같다. 만약에 이 미녀가 진실로 정하다면 상술한 네 종류의 사람이 보아서 모두 반드시 정으로 볼 것이다. 만약에 또 진실로 부정하다면 네 종류의 사람이 모두 부정으로 볼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잘생기고 못생김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의 부처

《흠으로 빛은 부처는 물을 건너지 않는다》
 《쇠불이로 빛은 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않는다》
 《나무로 조각한 부처는 불을 건너지 않는다》
 흠으로 빛은 부처도 물에 들어가면 본래의 흠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쇠불이로 빛은 부처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부처의 형체가 없어져 쇠물이 되고 말며, 나무로 조각한 부처도 불에 들어가면 재밖에 더 되겠는가?
 흠 부처가 아니요, 쇠 부처가 아니요, 나무 부처도 부처가 아니라 진불(眞佛)은 그 어느 곳에 있으며, 또한 어느 곳에도 없는 것이다. 오직 마음 속에 각자의 부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42화-

글:그림/정수일

자, 그럼 "무지역무득 이무소득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잔다.. 잔다..
 깊은 뜻을 말하자면 여지껏 말한 오온, 12처, 18계, 12인연, 팔정도 등 모든 것은 다 없고 오직 일체 만물은 집착하지 않는 지혜, 즉 "공"의 상태다 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우리 같은 중생들에게 그깟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오랜만에 마음이 맞네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너무 머리가 나빠 자기 이름도 잊어 먹을 만큼이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눈썹의 문답, 즉 "안면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눈과 코와 입과 귀는 항상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보다 더 헛자리에 있는 눈썹이 미웠답니다.
 우웅... 저정 그냥 꼭 물어 버릴까?
 그렇게 물어 생긴 것도 까맣게 못생겨 가지고.
 뭐가 소득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자세와 태도보다는 지나친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일하는 저 눈썹과 같은 무소득의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음마니반메출...
 그냥 누워 있지...
 미... 미안해.
 그... 글썄. 그렇게 따지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단지 난.. 조상 대대로 이렇게 이마 밑에 붙어서 살아왔거든.. 자네들에겐 미안하지만 나는 내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자리를 지켜오고 있대네... 임잉...
 미안 미안해 불러줄까?
 정수일: http://home.paran.com/octago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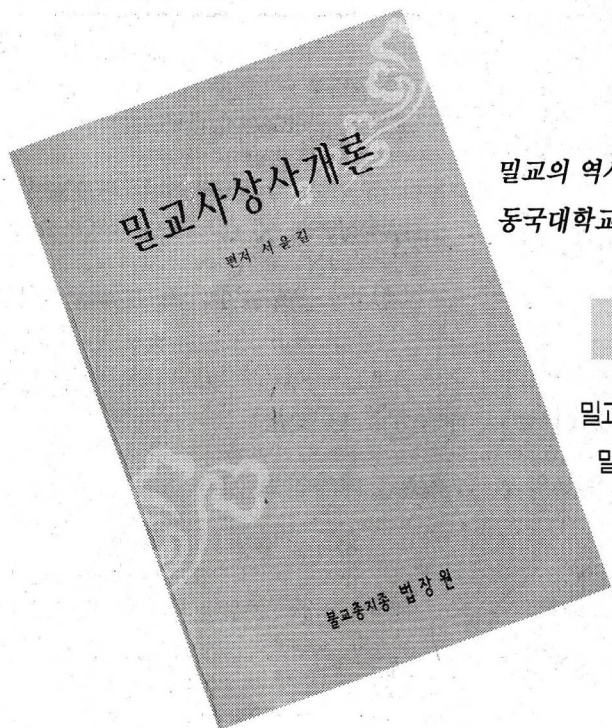
이달의 명상

못된 개

옛날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어느 장자에게 성질이 아주 못된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사람 물기를 좋아해서 사람들은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은 어느 스님이 그 집에 들어가 결식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마침 못된 개가 잠을 자느라 스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장자가 스님에게 음식을 베풀고 있을 때 그제서야 눈을 뜬 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빨새! 잠을 자는 바람에 저 스님이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구나. 이 일을 어쩐다?'
 그래, 저 음식을 나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서만 먹으면 나갈 때 물어 죽여 그 뱃속에 든 음식을 꺼내 먹을 것이고, 만약 음식을 나누어 주면 용서해 주리라.
 개의 생각을 꿰뚫어 본 스님은 음식을 들고 와 개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못된 개는 매우 기뻐하면서 마음을 고쳐 먹고 스님의 발을 핥아 주

며 배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문 앞에 앉아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 때 일전에 그 개에게 물린 적이 있던 한 사내가 양식을 품고 슬그머니 다가와 칼로 개의 목을 찔렀습니다.
 목숨을 잃은 개는 곧 장자의 아들로 환생했는데 얼마를 살지 못하고 죽었고, 다시 그 나라의 다른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10살쯤 되었을 때,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한 스님을 보더니 달려가 집으로 모시고 와서는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을 제 스승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부모는 흔쾌히 허락하며 공양을 베풀고 설법을 청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다른 아난 옛날 개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편집자 주)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와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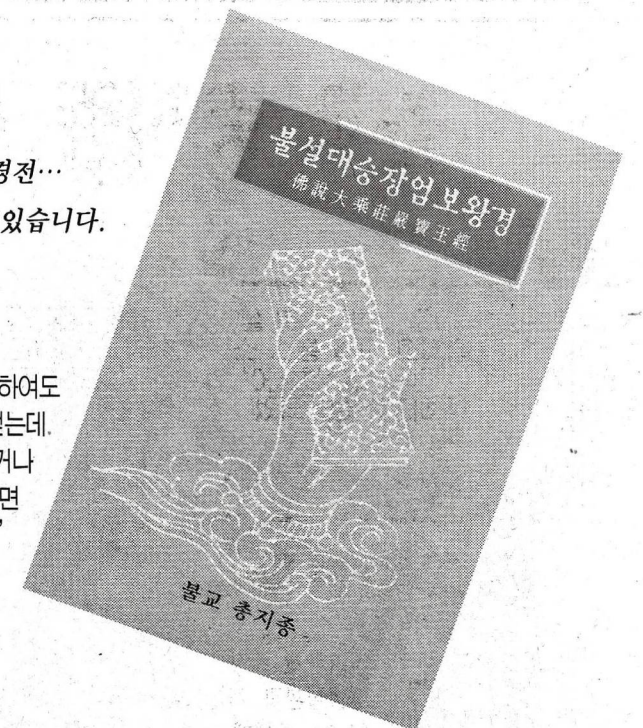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음마니반메출)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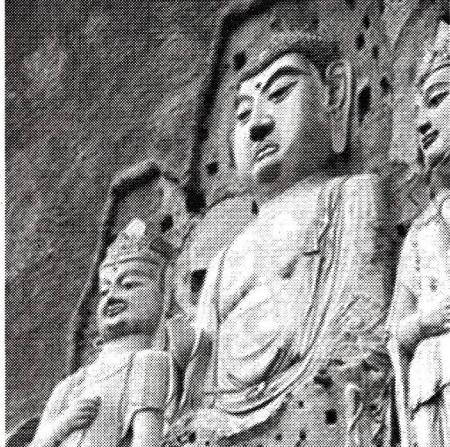
세계속의 불교

buddhism in china(중국의 불교)

인터넷을 통해 세계속의 불교가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The spread of Buddhism Among the Chinese (중국의 불교전파)

B.C 3세기경 아소카왕은 지금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인 인도의 북서쪽에 포교사를 파견하였다. 그 지역의 포교는 흥행하여 불교 교육센터를 만들고 훌륭한 스님과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그 당시 중앙아시아의 상인들은 무역을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하여 불교를 배우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 그들의 종교로 수용하였다. B.C 2세기경에는 중앙아시아의 도시인 고창은 불교의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다.



중국인들은 이미 불교도인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통해 처음으로 불교를 접하게 되었다.

B.C 1세기경에는 중국 한나라의 세력이 강성하여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넓힘으로 인해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무역과 문화의 교류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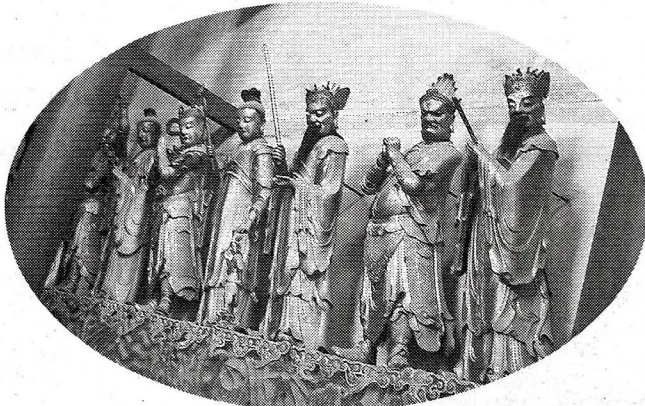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인들은 불교를 배우게 되고 1세기 중반에는 중국의 불교사원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불교서적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여 인도어인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번역가들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2세기경 중국에 들어온 유명한 번역가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안시가지오이다. 불경의 번역본들이 증가함에 따라 불교는 중국에서 널리 퍼지게 되고 승가단체도 형성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가장 알려진 중국 승려는 안시가지오의 제자이다.

초기의 번역가들은 불교의 개념을 중국어로 정확히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주 도교의 용어를 차용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불교가 도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중국인들은 불교의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3세기의 초에 한나라가 쇠퇴기에 접어들어 중국은 전쟁과 폭동 등 정치적인 혼란기에 빠져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의 번역은 계속 유지되었고,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중국 스님들은 사원을 만들고 불교 교리를 강의하였다.

중국 스님들 중에 4세기에 살았던 다소 안스님이 가장 유명하였다. 그는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 이 지역 저 지역 이동을 해야만 했을 지라도 많은 책을 쓰고 강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각 주제별로 목록을 만들어 놓은 책자를 만들었



다. 그는 쿠차로부터 유명한 번역가 무마라지바를 초대하고, 도안의 제자들 도움으로 구마라지바는 많은 중요한 불경을 번역하였고, 전에 번역되었던 불경들을 다시 수정하였다. 그의 훌륭한 번역책들은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다. 그 후에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구마라지바의 제자들은 각 지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 지역에서 불교를 포교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The Establish of Buddhism in China(중국의 불교정착)

5세기 초기에서 6세기 말경에 중국은 남중국과 북중국으로 분열되었고, 북중국에 비중국인에 의해 통치된 반면에 남중국

은 중국인에 의해 통치되었다. 남중국에서 불교학자들은 많은 불경을 번역하고 강의하고 주요한 경전의 비평을 쓰고 있었다.

남중국의 통치자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많은 사원을 건축하고, 불교의식에 동참하고, 불교에 대한 대중법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북중국에서는 혼란기인 이십여 기간을 제외하고 종교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지도자들의 후원으로 6세기 중반까지 스님들은 정부의 핵심자리에 등용되고, 그 기간동안 돈황양과 연강, 톈먼과 같은 엄청난 크기의 동굴이 만들어질 정도로 불교 예술이 융성하였다.



돈 후왕의 동굴에는 천 개의 동굴이 있고, 벽에는 부처님의 그림이 그려지고, 동굴안에는 수 천개의 불상들이 조각되어 있었다. 연강과 톈먼에는 수많은 부처님의 상이 바위에 조각되어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볼 때 그 시기의 말까지 중국에서 불교의 확고한 정착을 보여주고 있다.



The Development of Chinese Schools of Buddhism (중국 불교학교의 발전)

7세기의 초에 당왕조의 설립으로 인해 불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문화와 문학, 조각, 건축, 철학, 예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 많은 불교 학교들이 생겨나고 각 학교들은 각자 상황에 맞는 불경을 가지고 수행과 교육에 열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티안 타이 학교는 불경을 큰 목록으로 정리하여 다양한 수행자들에게 적합한 연화경에 기초한 교리와 수행체계를 발전시켰다.

또한 부처님의 교리를 다양한 영역에 초점을 맞춘 학교들이 생겨났다. 찬과 극락정토를 의미하는 여래장이란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존재했는데 다양한 한문에서 해탈을 경험하고 통찰력을 얻는 것

을 강조한 명상법을 수행하였다. 여래장 학교는 아미타부처님의 상호를 암송하는 수행법으로 모든 사람은 아미타부처님의 상호를 암송하고 일심으로 믿으면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단 여래장에 들게되면 사람은 쉽게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수행법의 간단함으로 인해 이 학교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인기가 많았다.

9세기 중반에 불교는 도교의 황제가 등극하여 불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여 수행처는 폐쇄되고 사찰은 몰수당하고, 스님들을 환속하게 하였고, 불상은 파괴되었다. 이러한 박해의 기간

을 강조한 명상법을 수행하였다. 여래장 학교는 아미타부처님의 상호를 암송하는 수행법으로 모든 사람은 아미타부처님의 상호를 암송하고 일심으로 믿으면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단 여래장에 들게되면 사람은 쉽게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수행법의 간단함으로 인해 이 학교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인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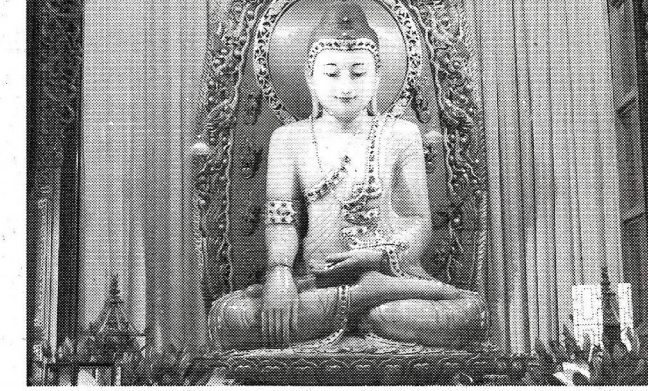
을 강조한 명상법을 수행하였다. 여래장 학교는 아미타부처님의 상호를 암송하는 수행법으로 모든 사람은 아미타부처님의 상호를 암송하고 일심으로 믿으면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단 여래장에 들게되면 사람은 쉽게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수행법의 간단함으로 인해 이 학교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인기가 많았다.

을 강조한 명상법을 수행하였다. 여래장 학교는 아미타부처님의 상호를 암송하는 수행법으로 모든 사람은 아미타부처님의 상호를 암송하고 일심으로 믿으면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단 여래장에 들게되면 사람은 쉽게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수행법의 간단함으로 인해 이 학교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인기가 많았다.

을 강조한 명상법을 수행하였다. 여래장 학교는 아미타부처님의 상호를 암송하는 수행법으로 모든 사람은 아미타부처님의 상호를 암송하고 일심으로 믿으면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단 여래장에 들게되면 사람은 쉽게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수행법의 간단함으로 인해 이 학교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인기가 많았다.

이 짧았을지라도 중국에서 불교의 종말을 가져올 정도로 영향력은 엄청나게 작용하였다.

수행처와 사찰의 폐쇄와 스님들의 환속으로 많은 불교학교들은 확장의 움직임을 중지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때까지 존재한 찬과 여래장학교로 흡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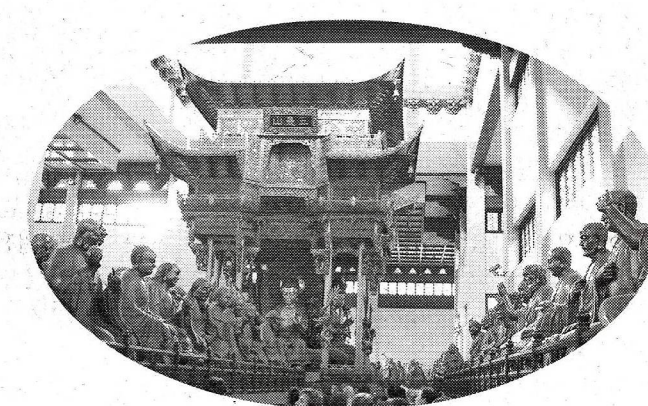
따라 중국불교는 새로운 통합을 이루어 찬의 명상수행법 외에도 아미타부처님을 암송하는불경을 공부하는 불교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불교의 교리와 수행이 사원에서 하나의 근원에서 통합을 이룬 뒤 불자들은 불교, 도교, 유교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교가 왕족과 귀족들에게 우세를 보이면서 불교는 등한시 되었다.

불교는 점차적으로 중국 종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2세기에는 많은 대중들을 흡수하기 위해 전통불교를 개혁하고 현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개혁가는 타이슈 스님이다. 그는 학자로 유명하였으며, 사원공동체에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불교를 공부하는데 있어 외국어와 특별한 주제를 포함하여 서양의 방식을 도입하였다.

1960년에 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불교는 박해를 받았고, 많은 사원은 폐쇄되었고, 스님들은 환속되었다. 최근에 종교에 대한 자유로운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가적으로 불교수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불교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http://www.buddhanet.net/e-learning/buddhistworld/china.htm) 번역 : 김용주/총지중보사)



정보 다이제스트

"사형제 하루속히 폐지"

불교를 비롯해 기독교, 천주교 등 7대종단 종교인들의 모임인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공동대표:진관스님)'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과반수가 넘는 175명의 여의의원들이 동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형제폐지법안이 늦어도 6월 입시국회에서는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연세살인범 유영철로부터 어머니와 아내, 아들을 잃은 피해자인 고정원씨가 참석해 "당신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 "판사님, 절대로 죽여서는 안된다."라며 사형폐지를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진관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하루 속히 사형제도가 폐지돼 모든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며, 뜻 생명들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범종교연합 공동대표인 문장식목사, 정상덕교무, 김형태 변호사를 비롯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직 최다 소득은 안과 의사"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전문직종 가운데 안과 의사의 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 변호사 등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렸으며,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문분야에 따라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04년 전문직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를 분석한 결과에 안과 의사는 월 평균 1,154만원을 벌어들여 26개 전문직종 중 가장 많은 소득을 올렸다.

이어 변호사(1천89만원), 외과의사(993만원), 이비후과 의사(763만원), 방사선과 의사(751만원), 변리사(742만원), 성형외과 의사(720만원), 치과 의사(681만원), 피부과 의사(673만원), 신경과 의사(683만원)가 뒤를 따르는 등 상위 10결중 8명이 의사였다.

이밖에 관세사, 약사, 세무사, 회계사들이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으로 나타났다.

문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절도는10대, 강도는20대, 성폭행은30대

범죄 피의자를 나이별로 분석한 결과 절도는 10대, 강도는 20대, 성폭행은 30대, 폭력은 40대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에는 폭력이, 금요일에는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발표한 '1분기 치안지표'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에서 발생한 총 범죄는 39만3천764건으로 작년과 같은 기간보다 17.2% 감소했으며, 5대 범죄(강도, 절도, 살인, 폭력, 성폭행)도 99,124건으로 4.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범죄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절도는 19세 이하가 31.5%로 가장 많았고, 20세~30세 22.7%, 31세~40세 20.1%, 41세~50세가 16.6% 순이었다.

성폭행은 30~40세가 전체 피의자의 34.1%, 41~50세가 27.4%, 20~30세가 24.9%였으며 폭력 피의자의 29.8%, 41~50세, 27.9%는 20~30세였고 19세 이하는 28.2%였다.

요일별로는 강도 사건은 금요일(17.4%)에 가장 많이 일어났고, 성폭행은 화요일(15.7%)과 토요일(15.6%), 절도는 월요일(15.1%), 폭력은 토요일(15.5%)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주요 범죄 모두 자정부터 새벽4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으며 절도는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도 24%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 주변 납치 등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달당 건립 추진

재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 가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 예금주 :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회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친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별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기획특집 경전으로 알아 본 밀교의 수행법

밀교수행의 가장 기본인 십팔도수행법

밀교의 수행체계는 한 가지로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방면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근거나 편의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행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지방이나 시대에 따라서 다르며 각 종파 혹은 가르치는 스승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에 비밀리에 전해지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계통을 세워 체계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 그러나 밀교의 수행법은 모두 경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인 골격은 같다. 밀교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십팔도수행법이다.

십팔도수행법은 18종의 계인을 기본으로 조직된 수행법으로서, 이 18종의 계인은 각각 금강계만다라의 5불과 4비라 밀보살, 그리고 태장계의 9존을 상징하고 있다. 18종의 결인과 거기에 따른 18종의 진언, 그리고 관상법으로 18도행법은 밀교수행의 기본이 되면서 이것만으로도 불교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또한 금강계 행법이나 태장계 행

법 등의 보다 고차적인 수법과 비법을 익히기 위한 전 단계의 수행법으로서도 매우 중시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십팔도의 행법은 크게 나누어 정엄행자법, 결계법, 장엄도량법, 권청법, 결호법, 공양법의 육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엄행자법

장엄행자법은 수행자의 수행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호신법이라고도 하는데 정삼법, 불부삼매야, 연화부삼매

야, 금강부삼매야, 피감호신의 여섯가지 계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엄행자법을 행하기 위하여 먼저 수행자는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다음 향을 발라 자신의 신체를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수행자의 이상상인 금강살타보살을 관하면서 청정하고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며, 발로는 연화를 밟고, 눈으로는 해와 달을 관하며, 도량에는 제불보살을 상징하는 빛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면서 도량에 들어온다. 이 빛은 번뇌에 덮힌 우리의 마음의 때를 벗겨내어 청정하게 한다고 관한다. 이러한 행위는 심신을 정화하여 수행의 자세를 가다듬는다는 의미가 있다.

도량에 들어오면 예를 올리고 자리에 앉는다. 결가부좌를 하고 등을 바로 세운 다음 눈을 반쯤 감는다. 동시에 호흡을 가다듬으며 관상의 자세를 취하는데 밀교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삼마지에 든다고 한다. 이어서 다시 예를 올리고 '흠'자를 세 번 외워 신·구·의



지를 받아 수행자의 의업을 정화한다고 관하며, 금강부삼매야는 금강부의 제존의 가치를 받아 수행자의 의업을 정화한다고 관하며, 피감호신은 수행자가 여래의 지비의 갑옷을 입는다고 관하여 호신법을 완성하게 된다.

결계법

결계법에서는 여러 가지 마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신성한 경계를 짓는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금강결과 금강장의 두 가지 계인이 있다. 결계법에 들어가면 우선 삼매야의 공덕을 관하는 인(印)인 대금강론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진언을 외우며, 제불 가운데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을 관상한다. 다음으로 금강결인과 거기에 따른 진언을 외우면서 자기가 앉은 도량과 자기 마음속의 도량에 청정한 기운이 흐르도록 말뚝을 박아 경계를 정한다고 관한다. 다시 금강장인을 맺고 거기에 따른 진언을 외우면서 말뚝과 말뚝 사이에 담을 친다고 관함으로써 결계법은 끝난다.

장엄도량법

장엄도량법은 글자 그대로 도량을 장엄하는 것인데, 앞의 결계법에서는 수행의 기본이 되는 청정심을 마진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여 지킨다는 데에 뜻이 있다면, 장엄도량법에서는 본존불과 일체로 되어 불의 경계인 공관을 제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엄도량법은 도량관과 대허공장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

처음 단계는 도량관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의 마음과 여래의 마음이 일체로 되는 것을 관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먼저 여래관인을 하고 여래의 덕을 상징하는 '야'자를 생각한다. 동시에 '야'자가 상징하는 여래의 공전과 누각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제불보살이 앉아 있는 도량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모습을 그린다. 그리고는 그 중앙에 대비를 나타내는 '키덕'이라는 글자를 나타내면 이득고 그것은 붉은 연화좌로 변한다. 이것은 대비심이 생겨나는 근원적 생명을 상징한다. 이 단계에서 다시 '야'자를 관하는데, 이 '야'자는 수행자의 마음이 원만하고 깨끗한 보리, 즉 깨달음의 주체가 됨을 상징한다. '키덕'이라는 글자를 잘 관하면 불멸의 보배인 두 가지의 '다락'이라는 글자를 관할 수가 있다. '야'와 '다락'의 3글자는 금강보편이라고 하며, 흥련회의 위에서 창조적인 생명을 유출하는 보배구슬, 즉 여의보주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보주가 본존인 여의륜관을 그것으로 된다. 여의륜관의 몸은 금색이며,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설법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신체에서는 광명을 발하는 것으로 관한다. 여의륜관의 여섯 팔은 육도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자비의 마음과 합일하는 것을 관하면서 여래관인을 하고, 진언을 외우면서 신체의 각 부분에 가지한다. 다음에는 대허공장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진언을 외우면서, 허공으로부터 다함이 없는 지혜의 보배를 취하여 마음의 도량을 장엄한다고 관한다. 이러

한 관상법은 어둡 보기에 황당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체득되어야만 다음단계로의 수행이 가능하다.

권청법

권청법은 글자 그대로 제존을 도량에 맞아들이는 법으로서 제존을 태우고 모셔오는 보거를 상징하는 보거로의 결인과 진언, 그리고 이 보거에 제존을 모시고 마음의 도량에 모셔오는 것을 관하는 청거로의 결인과 진언, 또 제존을 도량에 모시고 들어온 다음 수행자 자신을 진실지혜의 본체라고 관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과 모셔온 제존과의 일체화를 관하는 소청으로서 권청법은 이루어진다.

결호법

결호법은 청정하게 된 마음이 도량에 다시 사마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서 여기에는 마두명왕, 금강명왕의 결인과 진언으로 명왕을 불러 마음의 도

있는데, 알가란 정화수를 말하는 것으로 맑은 물을 그릇에 담아 공양하면서 본존의 발을 씻어 드리고 목욕시켜 드리는 것을 관한다. 연화좌 본존이 앉은 곳을 말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따른 결인과 진언을 통하여 자리를 마련하여 본존을 모시는 것처럼 관한다. 오공양은 본존에 대하여 향을 바르는 향, 꽃다발, 태우는 향, 음식, 등불 등을 바치는 것으로, 이것도 실제의 물건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결인과 진언, 그리고 마음으로 관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상의 육법에 따른 18가지 과정을 완성한 후에는 본존과의 합일을 더 깊게 하기 위한 입아임관을 중심으로 한 열송법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단계를 완성했다고 해서 즉신성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지 본존과의 합일에 유사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을 뿐으로 즉신성불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금강계와 태장계의 행법을 계속해서 더 행해야 한다.

밀교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의 하나인 십팔도행법도 복잡하게 구성되어



량을 수호하게 한다. 이 때에 그 권속 가운데에 사악한 것은 도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한다. 다음에는 금강장의 결인과 진언으로써 도량을 에워싸고 견고하게 지키는 것을 관한다. 이어서 금강합일하는 것을 관하면서 여래관인을 하고, 진언을 외우면서 신체의 각 부분에 가지한다. 다음에는 대허공장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진언을 외우면서, 허공으로부터 다함이 없는 지혜의 보배를 취하여 마음의 도량을 장엄한다고 관한다. 이러

공양법

공양법에는 알가, 연화좌, 오공양이

있으므로 금강계와 태장계 등의 더 고차원적인 수행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스승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밀교의 수행법은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가 하면 이들 행법의 한 부분만을 따와서 수행하기 편하도록 한 것도 많으므로 각자의 근기에 따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익혀나간다면 고차원의 행법도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

(자료출처 : 밀교사상사개론)

'여성美' 조신화 원장

이런 여성병(부인병)으로 고생하시는 여성인 한의원엔 다양한 치료법으로 여의문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

여성美 한의원

여성병(부인) 클리닉

- 월 경 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 신 병 : 불임, 임신오제(입덧), 임신중독증 등...
- 산 후 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자경단(子經丹)

출산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복부 차공어혈케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5
KOTV
육아TV “전문 상담”

한남대교

점원동 신시역3번출구 신시역1번출구 도산대로

30M 지하철도구 1분거리 임방동행

STARBUCKS 매성미한의원

간남역

생혈액분석기 자동팔강진단기 초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좌훈욕기

교계소식

수경사 아동학대·매매 “이럴수가”

‘자비와 이타행의 가면 뒤에 숨은 악행과 추문의 실체’



지난 6월 25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선행 속에 감춰진 비밀·수경사의 두 얼굴 편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수경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청오(92) 스님과 비구니 무인(52) 스님이 버려진 아기 13명을 키우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여러 차례 소개된 곳이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추적한 수경사의 실상은 판판이었다. 분유를 먹여야 할 아기에 일반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여야 할 아이에게까지 국에 만 밥을 매끼 먹이는 것은 예사. 심한 화상을 입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거나, 아이들을 방에 몰아넣고 문을 잠그고, 우는 아기는 시끄럽다는 이유

로 이불을 씌워 놓을 뿐더러 아기의 연약한 피부가 매일 정도로 뜨거운 물에 목욕시키는 등 온갖 학대가 자행됐다. 사미니계를 받았을 뿐 정식 승려가 아닌 수경사의 여자 주인은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을 지극하게 돌보는 척 하다가도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아기가 탈장을 했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수경사의 두 사람이 돈을 주고 산부인과에서 아기들을 데려오고, 입양을 원하는 신도들에게 막대한 대가를 받고 아이들을 넘기는 등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벌여왔다는 사실. 취재진은 신도의 도움을 받아 아이 2명을 입양하기 위한

조건으로 무인이 16억원에 달하는 땅을 사주거나 수경사의 주차장 공사대금을 대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

박승욱 PD는 “3주전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제보로 취재에 들어갔다”며 “처음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방치 수준의 문제로 파악했지만 취재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방송이 나간 뒤 ‘그것이 알고싶다’ 게시판에는 이들의 소행과 당국의 관리 소홀, 언론의 오보 등을 질타하는 글들이 빗발쳤다.

금강산서 세계시인대회

남북시인과 낭송회·평화 선언

전 세계의 시인들과 남북대표 시인들이 한민족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천태종 상월원각 대조사 31주기 열반대제

구인사 설법보전에 2만여명의 불자 동참



천태종을 중창하고 초대 종정을 역임한 상월원각대조사 31주기 열반대제가 6월 3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2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행사는 삼귀의례로 시작돼 국민의례, 찬불가 합창,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헌화 및 헌향, 상단권공 및 조사영반, 추모사 및 추도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추모사에서 “대조사님은 평소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강조하셨다”며 “천태종도들은 금강대 인재불사, 평화통일 불사 등을 통해 대조사님이 가르치신 3대지표를 실천하는데 더욱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오늘의 천태종은 조사께서 펼치신 무량자비의 방편문”이라

기원하는 ‘세계평화시인대회’를 연다.

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윌레 소잉카(나이지리아, 1986년)와 미국 계관시인 로버트 핀스키 등 각 언어권별 주요 시인 시인 30여명을 초청, 광복60주년 기념 ‘세계평화시인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시인들은 한국측 한국문인협회 회원 1천여명과 300여명의 문인과 함께 8월 12일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만해축전 개막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시’ 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초청된 세계의 시인들은 남측 대표 시인과 함께 12일 북한 금강산 호텔에서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자작시를 낭송한다. 북측에서는 대표 시인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낭송된 시들은 한대륙에서 2005 평화의 시·시화집으로 발간되며 시인들의 평화선언도 있을 예정이다. 초창시인과 남북 대표 시인에 대한 정확한 인적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늦어도 7월 중순경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함경 이야기

부처님의 성도 <4>



회령 정사

아마 자기는 남보다 진리에 대해서 더 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지 남들이 하지 않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행이라도 좀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수행은 제대로 하지 않고 대접받는 것만 부처님처럼 받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앉아서 삼배를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삼배를 하라고 강권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말을 예사로 합니다. 나이 젊은 스님이 나이 든 신도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신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반말을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스님들도 봤습니다. 수행자이기 이전에 예의 바른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자로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수행자로서의 성숙하지 못한 자세로 인해서 비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의 멸시를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 저저 삼배를 비방하는 거 아니야하면서 따질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대상은 수행

이다. 생명을 해치지 않음도 즐거움이다. 애욕을 극복하여 세상에 집착하지 않음도 즐거움이다. 그러나 나라는 교만심을 누를 줄 아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다.

아마 혼자서 깨달음의 법열을 마음껏 누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붓다라는 말이 눈을 뜬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세상의 진리를 원하게 알고 생보병사의 고뇌를 벗어 버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 기쁨을 즐기는 모습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부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누를 줄 아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스스로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최상의 진리를 깨치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경계하고 계십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좋아서 날뛰다가 미처 버렸을 지도 모르지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어려운 고행을 했는데, 혹은 나는 남들보다 더 깨쳤는데 하는 마음이 늘 앞서서 것이 수행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을 경계하시고자 교만한 마음을 누를 줄 아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또 7일을 삼매에 계시다가 다시 또 라자야타나 나무 아래로 가서 삼매에 잠겨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때에 타뜻사와 발라카라는 두 상인이 그 곁을

수행자가 경계할 것은 교만한 마음 귀의란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

자의 모습은 갖추었으니 부처님을 팔아먹고 불교를 팔아먹는 영터리 수행자들, 즉 불법법지의도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널리 전하고 욕심을 억제하며 수행에 힘쓰는 검소하고 정당한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수행자는 우리가 지극히 공경하며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만 되지도 않은 수행자를 대상으로 삼아 복의 씨앗을 뿌리려는 헛된 노력을 삼가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참된 바라문이란 죄악을 멀리하고 마음이 청정하며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은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고 대상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7일 동안 삼매에 잠겨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시다가 또 무탈리다라는 나무 아래에서 7일 동안 삼매에 잠겨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고 합니다. 이 때에 폭풍우가 닥쳐서 용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호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또 7일이 지나갔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계승을 읊으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보아 혼자서 만족함은 즐거움

지나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보리죽과 꿀을 공양하고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합니다. 마하박가에서는 이들이 부처님께 보리죽과 꿀을 바치고 이렇게 사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과 세존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신자로 받아주시시오. 오늘날부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상인들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최초의 신자가 되었지만 이 때에는 아직 승단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므로 삼보에 귀의한 것은 아닙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전하는 승가의 셋에 귀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의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라자야타나 나무 아래에서 7일 동안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시던 부처님께서 다시 니그로다 나무로 자리를 옮기셔서 삼매에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끊임없이 솟구치는 지혜의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당시 발견하신 연기의 법칙에 의지하여 일체의 존재와 현상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재차 검토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끝>

종교계도 생활패턴 변화에 발빠른 대처

주5일 근무제로 평일 예배와 법회도입

주5일 근무 확대에 따른 생활의 변화는 종교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가족끼리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심산유곡에 위치한 산사를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어 불교계는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반면 주일예배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톨릭과 기독교는 주말나들이에 나서는 교인들을 잡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고민하고 있어 두 종교계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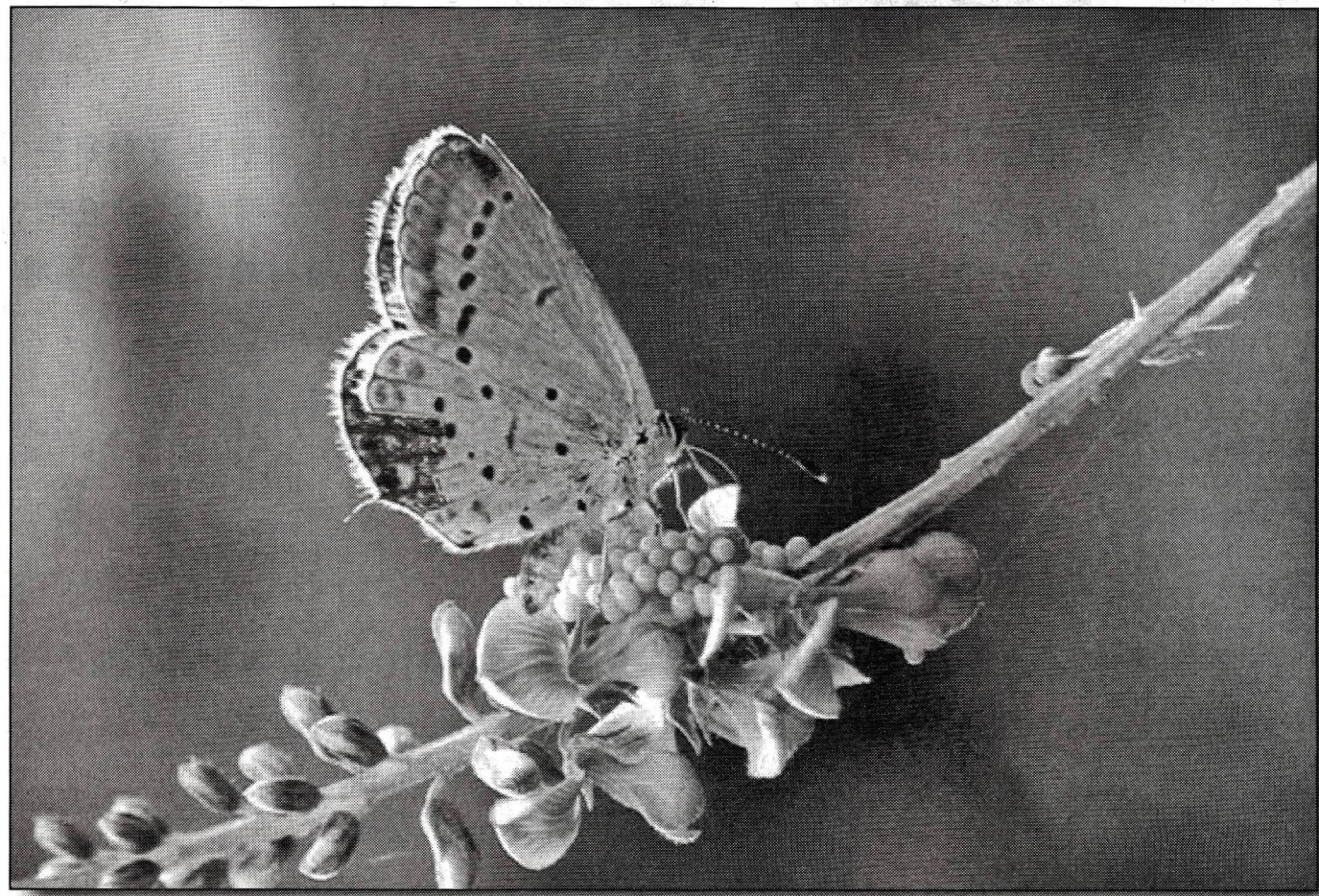
불교계는 특히 여행객들이 단순히 명산의 명찰을 관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템플스테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보통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새벽예배, 참선, 다도, 발우공양 등 산사체험은 물론 사찰순례, 연등만들기 등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다채롭게 꾸며져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43개 사찰을 템플스테이션 운영사찰로 지정해 숙박은 물론 불교문화체험을 적극 꾀하고 있다. 개신교는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집을 떠나서도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주말캠프를 개발하고 있으나 작은 교회는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이와함께 서울 중심가 교회들은 직장인들을 위한 평일예배를 강화했다. 36년전 직장인 예배를 처음 시작한 영락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오후에 각각 예배를 하고 있고 광화문 새문안교회 수요일 밤 7시 예배를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청년들을 위한 토요일 예배를 실시해온 가톨릭도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변화에 나섰다.

서울 양천구 목5동 성당이 일요일 밤 10시 미사를 개설한 데 이어 다른 성당들도 일요일 밤 미사를 개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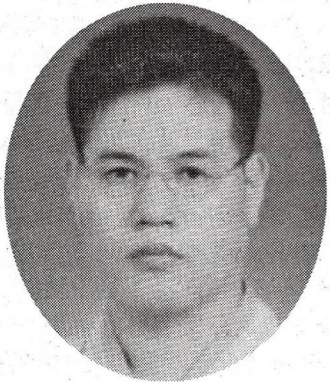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눈 눈에 띄지 않는
총지중보사의 작은 몸짓이
총지중의 역사를 만듭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생명사랑의 실천, 방생



김용주 (총지종보사)

총지종은 매년 7월 16일이면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고 그 불공공덕을 생명사랑의 실천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방생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러한 방생법회는 창종 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교도와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되고 있으며, 방생법회로 인해 많은 교도들은 방생공덕을 입은 사제가 증가하고 있어 방생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생법회는 선업공덕을 쌓고 생명사랑의 가장 큰 공덕을 짓는 행위로 그 공덕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이란 생명체의 근원이요, 바로 생명체의 주인공이다. 비록 겉모습은 사람과 짐승은 다르고, 새와 물고기가 다르지만 그 속의 주인공인 불성은 본질에서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하여 겉모습만 보고 분별하는 마음을 내어 해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방생은 살생과 반대되는 말로 살생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지만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선행이라면, 방생은 적극적인 선행이요, 살생은 자신의 복을 까먹는 일이지만 방생은 복을 짓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중국 당나라 현종 때의 일입니다. 수도 장사성 밖에 구조린이라는 불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조린은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걱정이면 나이 사십이 훨씬 넘도록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조린은 어떤 스님의 권유로 심령화라는 절에 가서 백일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구조린은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성심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다가, 회향 날에 그만 법당에서 절을 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채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거룩한 모습의 스님이 나타나기에 절을 올렸더니, 그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일만 목

숨을 살린다면 아들을 낳게 되리라" 구조린은 스님 옷자락을 붙들면서 애원하였습니다. "가난한 처지에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시켜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니다.

"마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으니 지극한 마음으로 불쌍한 생명들을 살리도록 하라"

꿈에서 깬 구조린은 기도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농부가 아들과 함께 미꾸라지를 한 통 가득 잡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조린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에 쓰시려고 미꾸라지를 그렇게 많이 잡아 가십니까?" "돼지를 기르는데 술 찌꺼기를 주면 좋지만, 술 찌꺼기를 살 돈이 없어서 대신 미꾸라지를 삶아서 주려고 합니다."

구조린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모두 털어 농부에게 주고 미꾸라지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미꾸라지를 모두 개울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라 하며 헤엄치며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양조장에 가서 주인에게 일을 해드릴 테니 농부를 위해 술찌꺼기를 세 통만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방생을 했다는 말을 듣고, 구조린을 칭찬을 하면서 돈도 받지 않고 술 찌꺼기를 주었습니다. 구조린은 양조장 주인에게 감사하며 뒷날 은공을 갚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꼭 10개월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주저사라는 인격과 학식이 높은 큰 선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사랑입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국토는 황폐해지고, 생명을 마구잡이로 잡아 생태환경을 망치고 기상 이변현상으로 재앙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을 살리는 방생은 뜻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방생을 인간보다 하등동물을 불쌍히 여겨 놓아 준다는 사교에 머무르지 말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나의 입장을 소멸하는 것,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 대자대비의 자비심을 가지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구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중생이 앓으면 보살이 앓는다는 불교의 연기론적 사교에 입각한 새로운 생명공동체 마음과 마음이 청정하면 온 국토가 청정하듯이 누구나 마음 속에 자비로운 마음, 생명 살리는 마음을 간직하며 생활하면 방생공덕은 더욱더 클 것이며, 조상들의 영식전도와 업장소멸로 누구나 천상의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교계소식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개원, 본격 진료 개시

“진료·연구·교육분야 최고 될 것”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1000만 불자들의 염원을 안고 6월 29일 문을 열었다.

일산불교병원은 이날 오전 10시 병원 5층 대강당에서 진료개시식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 갔다.

이날 진료개시식에서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은 "부처님이 사위성에 머무는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병든이를 간호하고 돌보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과 같다. 병든이를 돌보는 것 보다 더한 공덕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일산불교병원이 중생구원과 불법실현의 장이 되고,

직원 모두가 대자비를 실현하는 보살이 되기를 바란다"며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원장은 식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역사적인 대작불사인 일산불교병원 개원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며 "최선을 다해 진료, 연구, 교육분야 최고의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홍기삼 총장도 "개원 첫날부터 진료예약만 60명에 대형수술까지 예약됐을 정도로 지역민들의 관심 속에 일산불교병원이 출범하게 된 것을

염불행자들의 축제

전국염불만일회 제8차 성지대회 개최

7월 31일~8월 2일까지 예산 수덕사에서 염불행자들의 축제 한마당인 제8차 전국염불만일회 성지대회가 열린다.

충청권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성지대회는 근대 한국인의 중흥지로 일컬어지는 예산 수덕사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 여름 무더위를 깨끗이 잊게 될 이번 성지대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참가자들이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나무야마터불 염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지대회 첫날인 7월 31일에는 오후 2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수덕사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과 동산사물반의 신명나는 공연, 그리고 20여 명의 동산사비라반 회원들의 천수다라니 시연 회도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인 1일에는 수덕사에서 전월사에 이르는 왕복 3시간의 거리를 염불하며 걷고 수덕사 주변의 암자도

순례한다. 특히 오후 1시에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 선보이는 '염불과 차(茶)-다도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또 흔들림 없이 염불만일 결사에 동참할 것을 서원하는 염불다짐대회와 불가수 송춘희 씨와 머루와 다래의 찬불가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염불행자들 모두 축발을 켜고 소원을 빌며 동시에 수행생활을 다짐하는 '축발행사'와 이번 대회의 멋있게 나무야마터불 염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7시에는 염창단의 찬불가 공연과 동산사물반의 신명나는 공연, 그리고 20여 명의 동산사비라반 회원들의 천수다라니 시연 회도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인 1일에는 수덕사에서 전월사에 이르는 왕복 3시간의 거리를 염불하며 걷고 수덕사 주변의 암자도

열리우리당 '이타회' 창립총회 국회의원 불자회 '정각회'

6월 24일 열리우리당 불자의 원 모인 이타회가 창립되고 6월 30일에는 관문사에 정각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회 정각회(회장 이용희)는 6월 3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관문사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창립 1주년 기념 조찬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조직개편과 함께 열리우리당 불자의 원 모인 이타회 창립에 따른 신규회원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다할 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정각회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6월 24일에는 열리우리당 이타회(회장 윤원호)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윤원호 회장을 비롯해 최재성 의원(간사), 이용희 의원, 강창희 의원, 이영호 의원 등 20여명이 가입했다

3대종교, 가정 행복·생명존중문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민연대' 발족



국가적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 나섰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기현 주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정사역위원회(위원장 송길원 목사) 등은 3대 종교를 대표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시민연대를 6월 29일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족시켰다.

이날 발족식에는 조계종 포교인 포교부장 일관 스님,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정사역위원회 위원장 송길원 목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총무 송영오 신부 등이 3개 종교 대표로 나섰다.

시민연대는 "국가의 미래재앙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시민운동을

펼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시민연대를 만들게 됐다"며 "행복한 가정문화확산, 생명경시문화 배양, 생명존중문화 확산,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제안활동 등을 시민연대가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민연대는 시민단체와 유관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해 의견을 확장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시민운동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종교별 교리의 차이를 인정해 중립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따로 진행하면서 9월경 각 종단 수장과 함께 저출산 포럼 및 시민대회를 개최해 국민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정부정책 감시, 저출산 해결 범국민캠페인, 저출산 대책 각종 포럼 운영, 가정문화운동, 낙태반대운동 및 인양장려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 요가교실 수강생 모집



요가는 육체적·정신적·감성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증진시키는 총체적인 수행 시스템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삶의 과학이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통제·조절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총지종 총지사와 정각사는 요가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장 소 : 서울 총지사, 부산 정각사

◆ 대 상 : 일반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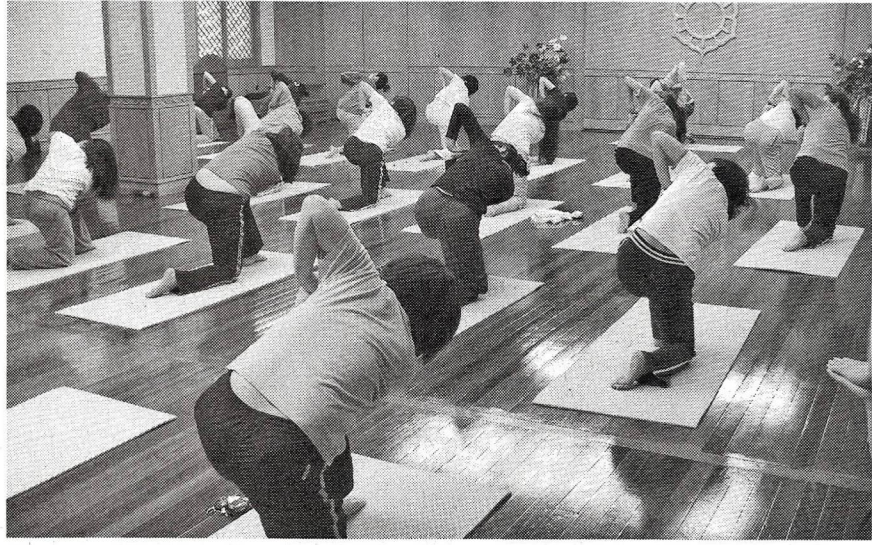
◆ 수강시간표 : 총지사 -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 화, 목 오후 3시
매주 월, 화, 수, 목, 금 저녁 7시
매주 월, 수, 금 저녁 8시
정각사 -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

◆ 수 강 료 : 총지사 - 월 \30,000원, 월 \20,000원
정각사 - 월 \10,000원

◆ 연 락 처 : 총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정각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7901

사원 유희공간활용 포교활성화

총지사 요가열풍, 정각사 공부방·불교대학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최근 사원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포교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총지사(주

정이다. 또한 총지사는 총지요가센터의 이용자와 지역의 시민들이 총지사를 방문하여 부담없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신형상담 센터를 개원하여 포교의 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각사(주교 법성)는 이달 초에 공부방을 개원하여 지역의 불우한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불교대학과 요가센터를 개원하여 운영함으로써 교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총지종은 전국 사원의 유희공간 활용으로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복합수행도량을 만들어 포교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포교방법의 개발로 지역사회의 문화와 신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총지종 낙산사 복원 성금전달

부처님의 전법도량의 재건기원

총지종 우승 통리원장은 6월 29일 낙산사를 방문하여 화재로 소실된 낙산사의 재건을 기원하는 복원 성금을 전달했다. 우승 통리원장은 "전통불교 문화유산인 낙산사가 불의의 화재로 많은 유물과 도량, 수백년된 나무들이 소실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불우한 가운데

에도 불구하고 재건을 위해 고생하시는 낙산사 스님들과 종사자들에게 위로와 더불어 고마움을 전하며, 하루 빨리 재건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낙산사에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인 운산(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굳은 신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낙산사 주지 정법 스님은 "한국불교계 지도자 스님들께서 몸소 이곳까지 찾아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다"며 "정성을 다해 낙산사를 복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현고 스님은 "저희 종단의 사찰을 방문해줘 감사하다"며 "이 시대 명찰로 다시 태어나도록 다미있는 불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도 한마디

6월 25일 저녁 SBS방송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수경사! 가면속에 가려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수경사에서 자행된 아동학대와 매매의 진실을 밝혀 내었다. 이 방송이 방영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경사는 고아들을 보살피는 선행과 자비 실천도량으로 전국 모든 시민들은 알고 있었고, 각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이들의 선행을 앞다투어 방영하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은 이들의 선행은 거짓이었고, 오히려 불쌍한 아동들을 학대하고 매매하는 가면속에 가려진 악마의 얼굴임을 밝혀주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사찰에 많은 후원금을 주었고, 그들의 선행에 박수를 보냈

수경사의 진실을 알고

지만 '속았다', '인간이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단어가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반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양심이 버려진 사회, 불쌍한 아동들까지 이용하는 현실의 비정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사람들을 더욱더 실망시키게 만든 것은 거짓이 없고 진실되며, 순수하고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스님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남을 사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아름답고 순수한 종교인들도 많지만 삭막한 현실속에서 종교인들까지 물질적 욕구로 충만되고 순수함과 진실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단체의 쇠신과 자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김광택/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신행체험 ②

정시·정승·정법으로 소원성취



백익숙 보살

(정심사 신정회 회장)

▶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된 계기?
제가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5년전 친구의 소개로 정각사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현교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각사에서 불공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심히 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오로지 영주하나만 들고 다니면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총지종에 인연이 되어 정진하는 것도 다 부처님의 인연공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인연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으며, 저를 제도하여 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 총지종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은?
저는 정각사에서 수행하면서 7정진을 받먹듯이 하였습니다. 또한 정시, 정승, 정법으로 불공을 하였더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 총지종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은?
저는 정각사에서 수행하면서 7정진을 받먹듯이 하였습니다. 또한 정시, 정승, 정법으로 불공을 하였더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 총지종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은?
저는 정각사에서 수행하면서 7정진을 받먹듯이 하였습니다. 또한 정시, 정승, 정법으로 불공을 하였더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 총지종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은?
저는 정각사에서 수행하면서 7정진을 받먹듯이 하였습니다. 또한 정시, 정승, 정법으로 불공을 하였더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수행하는 사람마다 근기에 따라 어렵고 힘든 점이 다르겠지만 저 또한 지금 까지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제가 좋아서 다니는 절이고, 제가 좋아서 하는 염승이라 어찌 어려움이라 하겠습니까? 아마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만 두었을 것입니다. 사원당에서 조용히 염승하다보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행복함만 가득합니다. 염승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총지종에서 수행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점은 정각사와 같은 사원에서의 보살님들이 월초불공할 때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월초때 만이라도 점심공양 정도는 배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이란 거지라 할지라도 배고픈 사람에게 배풀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그동안 수행하면서 나름대로의 수행법은?
저는 정각사에 있을 때 정시, 정승, 정법을 배웠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회시간에 늦지않고, 바른 자세와 마음자세로 염승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실천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진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해탈의 실천원리인 팔정도와 일백삼행입니다. 정진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정으로 마치는 팔정도는 수행자의 기본적인 실천원리입니다. 이러한 실천원리를 실행하는 가운데 마음속에는 번뇌가 사라지고 환희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면 남에게도 이러한 행위를 하게되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정심사 교도들 지랑할 점은?
총지종의 모든 사원이 마찬가지로 정심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도들 서로간에 허물없이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보살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른들은 어린 보살들을 보살피주는 따뜻한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로 생활하다보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서로 도와가며 살아 가고 삭막한 현실속에서 정심사는 삶의 위안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보살피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준 스승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정심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은?
제가 올해 1월 정심사 신정회 회장직을 맡게 되어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준 보살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모든 보살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공명이 가득하여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앞으로도 보살님들의 은혜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각자 좋은 인을 지으시고, 많은 공덕을 쌓으면 반드시 해탈을 이루리라 생각하며, 힘들 때가 달칠지라도 인욕하며 열심히 용맹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넓고 웅장한 정심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 날이 앞당겨지기를 두손 모아 지극정성으로 발원합니다.

▶ 총지종 수행법의 좋은 점과 수정할 점은?
우리나라는 1,600년이란 유구한 불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유물과 유적은 불교와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부처님의 은혜갚기 위해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21C 建設文化의 創造

연흥종합건설의 전 직원은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하여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건전한 기업
이미지를 구현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로 21C 건설문화를 선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기업이념(企業理念)

신용을 아는 기업
책임을 아는 기업

인정 받는 기업
봉사를 아는 기업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능력을 다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 된다.

경영이념(經營理念)

상 호 존 중 기 술 혁 신 고 객 만 족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상호 존중하고 기술혁신과
경영 합리화로 고객 만족과 가치창출을 최대화한다.

延興綜合建設(株)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7-8
TEL : 031)856-3301 FAX : 031)856-3303

법신과 일체중생이 내 마음



이른 아침 여름의 따사로운 햇살이 방긋 웃으며 다가선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옴마니 반머슴의 염소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오는 것 같다. 지하철을 타고 상봉역에서 내려 정심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왠지 가벼운 것은 무슨 연유일까. 아마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쉬임없이 웅망 정진하는 보살님들의 모습이 마치 수행자의 순수하고 맑은 모습 그대로 불공하는 열력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정진수행도량 정심사를 찾아가본다.

니다. 너무나 광대무변하여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법신이 내 마음이고, 일체 중생의 마음도 역시 내 마음입니다. 마음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그 자체 속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그 마음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여서 온 우주를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은 시공을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합쳐도 합친 사이가 없고, 표시나 무게 또한 없으니 아무리 빼내도 줄지 않고 더해도 늘지 않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을 합하여 한 부처님의 마음이 된다 해도 하나인 것이니 그 작용을 여져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천 백억 화신, 그것이 다 주인공 한 마음의 모용입니다.

마음 도리를 모르면 백 보를 뛰어도 종종 걸음에 불과하고, 이 도리를 알면 얽은 자리에서 한 생각에 천만 리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주인이자 부처이므로, 한 생각 일으키면, 문수요, 움직이면 보현인 것이니 주인공 한 마음자리에는 부처 문수 보현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한 생각에 오장육부의 생명의 씨가 형성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금이나? 녀마냐? 그것은 오직 생각의 차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처럼, 어떤 사람은 녀마처럼 과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금은 금방에, 녀마는 녀마전에 모이듯이 차원 따라 모여 사는 게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기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발전을 쓰지 못하고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자기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

고, 절대적인 불행도 절대적인 행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因)과 연(緣)이 잠시 합하여 모습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연을 가깝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곧 연(緣)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지라도 마음가짐과 자세, 곧 굳건한 인(因)으로 열심히 노력하면(業) 또다시 좋은 결실(果)을 거둘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심사 연혁

정심사는 총기4년 5월 상봉동에 동부선교부로 개설하여 살단불사를 하고, 총기4년 10월 응신서원당으로 개칭하고, 총기18년 상봉동에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본사를 이설하고 정심사로 개칭하였다.

정심사는 초대 환경정사와 무사기 전수가 교화한 후 대지행 전수, 연등원 전수가 교화하였으며 현재는 진일심전수가 교화하고 있다.

다음은 진일심 전수님의 법문을 들어본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현재의 삶은 모두가 인과응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전생을 생각하고 내생을 바라보며 금생을 알아갑니다.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라는 인과와 법칙을 확실히 믿고서,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이 '내'가 지은 바에 대한 과보라 생각하며 마음을 비우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고난에 처하여 남을 원망하거나 회피만 하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만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업(緣業)입니다. 지금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인연과 업'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부모를 만나고 부부가 되고 자식을 두는 것도 인연이요, 업이며 괴로움을 받는 것도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모두가 인연과 업의 결과입니다. 지금 영화를 누리거나 고통을 받는 것 모두는 과거에 심어놓았던 씨(因)가 바로 이 시간 전까지의 여러 가지 주변조건(緣)과 노력(業)에 의해 맺어진 결실(果)일 뿐입니다. 단순히 금생의 일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능히 기억할 수 있는 금생보다는 감지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전생의 인연과 업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다가 권좌에서 물러난 후 비난을 받으며 불명예 속에 사는 사람, 처음에는 죽도록 사랑하던 연인이나 부부가 나중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서로에게 남기고 갈라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두가 인, 연, 업, 과(因緣業) 곧 인연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눈길을 옮기고 귀를 기울이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연(善緣)도 만나고 악연(惡緣)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많고 많은 인연들 중에는 절대적인 선연도 절대적인 악연도 없



좋은 현실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인연법을 따르는 참다운 수행자입니다.

마음자리가 일체유정

이 세상이 아무리 넓고 태양이 뜨겁고, 우주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고 해도 내 마음만은 못할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의 향기와 빛은 어떤 힘으로도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일체의 신이 다 담뽀나 해도 꺾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해도 내 마음의 근본은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은 체(體)가 없기 때문에 강이 깊어서 못 가지도 않고 산이 높아서 못 오르지도 않습니다. 설사 은산 철벽이 가로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못 뚫을 리 없습니다. 자유자재하고 무궁무진한 게 마음 도리입니다.

다. 자기 본래의 모습은 온갖 고통을 떠나 청정할 뿐 아니라 무한한 능력이 샘솟는 자기발전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기 본래모습, 자기발전소를 믿고 모든 경계를 되돌려 그곳에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는 거기에 자기발전의 힘이 솟구칩니다. 전 우주의 발전소와 가설이 되어 있는 자기발전소, 그래서 무궁무진한 힘이 나옵니다. 주인공에 놓고 있다는 것은 나의 본래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법이 그 한 자리에서 출현하였으므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한 생각을 내면 그것이 그대로 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체법의 근본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115-27
전화 : 02-433-0374



인터뷰

정심사 진일심 전수



진일심 전수

▶언제부터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14살부터 올케 언니의 제도로 경북 장기 화곡심인당에서 들어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사장 어르신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옴마니 반머슴을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여 밭을 메거나 농사일을 하면서 옴마니 반머슴을 염송하시면서 마치 노래를 부르며 일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학곡 심인당에서 수행을 한 후 19살에는 포항에 있는 기복심인당에서 49일 불공을 하였는데 49일 불공을 하면서 불공이 마치면 심인당 앞에 있는 돌맹이를 치우는 일을 하였었습니다. 49일동안 돌맹이를 치웠더니 어느새 큰 밭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아주 조그마한 선업을 행하다 보면 선업이 쌓이고 쌓여 큰 선업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공 후 진각종 본원에서 사람이 필요하다 하여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 왔습니다. 처음 서울행이라 서울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각종 본원에서 사람이 마중나오기로 했는데 그때 성초정사님이 나오셨는데 서로간에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종조법집절을 들고 나오는 것을 표시로 하였었습니다.

진각종 본원에서 원정법을 모시기로 하였는데 복지 화전수법께서 저에 대한 내역을 아시고 이 사람은 스승될 사람으로 스승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여 복지 화전수법을 모시기 되었습니다. 진각종에 있을 때 전주에 있는 항수심인당에 주교로 계신 정사법님께서 저를 보시고 공무원인 아들과 결혼을 하도록 설득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르신은 진각종에서 통리 원장까지 하셨습니다.

총지종이 진각종과 분리되었을 때 저는 복지화 전수님을 따라 총지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총지종에서도 본원인 총지사에서 수년동안 큰 스승님들을 모시고 수행한 덕분에 지금은 교회의 일선에서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제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일심 전수님을 보면 모든 것을 남에게 베풀어주는 행을 실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행하면서 내뽀나 수행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특별한 수행철학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행이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자리를 바르게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살다보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고통의 나날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슬기롭게 고통을 해탈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 정진을 해야 합니다. 지혜는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에 따라 행동하다보면 지혜는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부처님께 서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하고 자문해 보으로써 그리고 원인을 살피으로써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과법에 따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나의 현실이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인을 지었기 때문에 인을 찾아 참회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스승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항상 참회하며, 좋은 인을 짓기위해 단지 정진할 뿐입니다.

▶진일심 전수님은 교회의 일선에 나가기 전 수행자로서 오랫동안 고행을 인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생교화를 하시면서 남다른 방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방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지만 저는 남들이 하는 일을 행하며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교도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끼를 대접해 주는 것, 교도들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솔선 수법하여 도와주는 것,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그분을 위해 불공해 주는 것,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 주는 것,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스승의 일이라 생각하고 나보다는 교도들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소한 지라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밥 한끼가 엄청나게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고통을 공유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교도들이 우리사원을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도록 배려하고, 서로간에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승의 임무라 생각하며 오로지 교도들의 해탈을 위하여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과 아만으로 가득차 집

착에 빠지게 되고, 서로간에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불교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법이야말로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대인들은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남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와 '너'라는 구별이 없는 평등한 삶이 바로 부처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서는 삼법인으로 '제법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상과 아만, 집착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상대방과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나의 생각과 주장만이 옳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간에 생각과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다보니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주장이 전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에 한계가 존재하고 그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남의 의견을 들어주는 자세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다보면 우리의 열 손가락이 다 크기가 다를 지라도 각자 맡은 바 쓸모가 있듯이 사람들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는 각자 불성을 가진 부처님이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보화시대에 살다보니 컴퓨터앞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많은 수록 자신의 집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지나친 집착은 정신적 이상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바로보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불법의 진리만이 현대인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원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교화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총지종의 모든 스승님들도 마찬가지로 사원에서 교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도들은 각자 성격과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수행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교도들을 대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원과 달리 혼자서 교화하다보니 자성일이면 교도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먹여 보내고 불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몸으로 동시에 두가지 일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정해진 불공과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사원의 주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선사원에서 교화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선 사원에서 교화하다보면 보람된 일도 많습니다. 교도가정에 기쁜 일이 일어나면 보살들이 찾아와 자랑하고, 서로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세상이 아닐까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저는 스승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살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존경을 해주기 때문에 교도들이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마 모든 스승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또한 보살들의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각 가정에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해탈을 이루는 것을 보았을 때, 교도들이 쉬임없는 용맹정진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총지종 교도 및 정심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정심사 교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정심사에서 교화하셨던 전 스승님들을 존경합니다. 이 분들의 인연공덕이 있었기에, 제가 교화를 할 수 있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해탈과 행복을 위해 더욱더 용맹정진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편안함을 추구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고통의 굴레속으로 뛰어 들어 고통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한 것이라. 한번 편히되면 계속 편히지고 싶어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고통에도 이길 수 있도록 용맹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합니다.